News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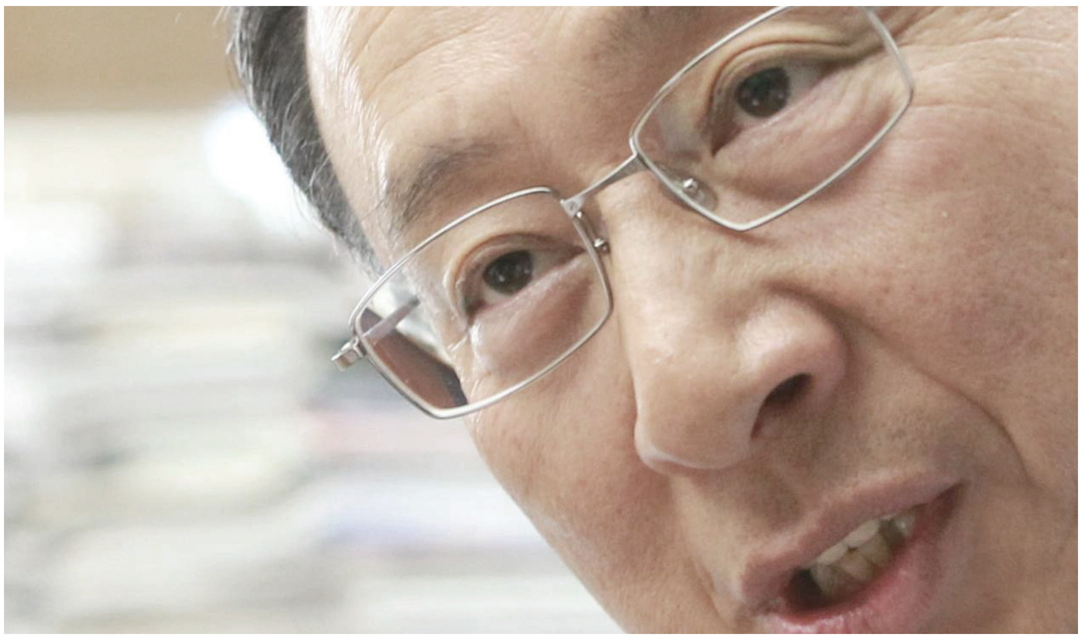
"남북관계 개선 적극노력"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제328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1908.00	(+13.91)
코스닥	673.71	(+6.27)
금리(국고채 3년)	1.71	(−7.60)
환율(원·달러)	1179.50	(+2.80)





브라질증시 BOVESPA지수 장기 추이. /자료=이베스트증권

황된 KT 알뜰폰

기로에 선 통신산업

황창규 회장 도입… 올 상반기만 70억원 적자
1년전 이미 정체기 돌입한 상태서 '헛발질'

통신망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알뜰폰 사업(MVNO)을 하는 KT가 지난해 7월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을 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7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황창규 KT 회장(**사진**)의 경영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체기에 접어든 알뜰폰사업에 투자해 '제살 깎아먹기 식' 사업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가 알뜰폰 사업을 운영 중인 계열사 KT M모바일이 상반기에 69억9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KT M모바일은 KT의 계열사 KTIS(고객서비스·무선 유통사업자)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알뜰폰 사업을 지난 6월 1일 별도 법인으로 이관한 회사다. 이관 배경에 대해서 KT는 "MVNO사업 분야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

KT M모바일 전신인 KTIS는 알뜰폰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 당기순이익이 2014년 상반기(79억873만원)와 비교해 64억970만원이 떨어진 14억9900만원에 그쳤다.

KT M모바일은 KT계열사 중 르완다 법인(olleh Rwanda Networks Ltd.) 다음으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르완다 법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150억270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작년에 이어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알뜰폰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4월 21일 기준) KT M모바일 가입자는 18만1000명이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 중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성적표로 10위인 에넥스텔레콤 등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10만명 이상 뒤처지는 수치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 순위를 살펴보면 대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86만6000명)과 SK텔링크(81만8000명)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 이하는 유니컴즈(42만7000명), 아이즈비전(39만7000명), 스페이스네트(프리텔레콤 포함·37만4000명), EG모바일(34만4000명), 에넥스텔레콤(28만명) 등 중소 사업자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임대 비용을 내고 사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한 KT와 비교된다. 미래에셋증권은 CJ헬로비전에 대해 "올해 예상 MVNO 서비스 매출은 21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성장을 전망하며 내년에도 42%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망을 이용해 알뜰폰 사업을 해도 중소기업에게 한참 뒤지는 초라한 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황회장의 경영전략 부실 때문이다"며 "단기 성과에 급급해 인원구조조정 등은 과감하게 하더니 뜬금없이 알뜰폰 사업은 독립법인으로 분사 시키는 등 '제살 깎아먹는 방식'의 전략을 구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수렁에 빠진 신흥국

브라질·인니·남아공 등 부도위험 7년만에 최고치

중국의 경기 둔화로 신흥국들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화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국가부도위험지수도 치솟고 있다.

위기에 빠진 신흥국들의 부도 위험 지표는 최근 급속도로 치솟고 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CDS 프리미엄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27일 브라질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50bp(1bp=0.01%포인트)까지상승했다. 2009년 3월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DS 프리미엄도 최근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290bp 수준까지 치솟았다. 터키의 부도 위험 역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 위험이 모두 큰폭으로 상승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금리(프리미엄)가 붙는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진 것으로 간주된다.

신흥국들의 채권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30억 링깃(842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나섰지만 매물이 소화될지 확실하지 않다. 블룸버그는 현재 말레이시아 10년물 금리는 연 4.401%로 올해 2월 저점(3.742%)에서 0.7%포인트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의 국채 금리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등 일부 신흥국가의 통화가치는 급락하고 있어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터키도 연초 대비 25%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외화보유액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태국은 외채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로 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통화 가치는 올해 들어 43.3%나 떨어졌고 브라질(−36.1%), 러시아(−13.6%)도 큰 폭의 통화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고, 콜롬비아의 통화 가치 역시 올 들어 10% 넘게 떨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자원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들의 경제는 더 큰 하강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신흥국의 어려움은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다 최대 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들 자원보유국의 통화가치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환율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국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들 신흥국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The suspicion of Hyundai Emco's illegal support for Seolim Development inc.… didn't Chung Eui Sun know it?

현대엠코의 서림개발 불법지원 의혹…정의선은 몰랐을까?



Some are analyzing that the case that Hyundai Emco supported Soelim Development inc. about 800 million wons is similar to the embezzlement and negligence of the 'Hyundai Motors slush fund scandal'.

Some get suspicious that this is for the power succession, because the unlisted companies that Chung Eui Sun vice-president of Hyundai Motors is privately owned are involved in these all two cases, and affiliates of Hyundai Motors support these Chung vice-president's unlisted companies.

'Hyundai Motors slush fund scandal' is that Chung Mong koo Hyundai Motors Group Chairman was punished for embezzling company funds in the process of shaping the ouline for power succession of 'Ji Yoo', which is Chung vice-president 's privately owned company.

Some point out that the case that Hyundai Emco supported Seolim Development inc. is similar to the incident that the affliates supported unlisted company, 'Ji Yoo' in 2007.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is a comment that Chung vice-president has bought the estate around Paldangho Lake for raising funds for the power succession.

현대엠코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개인 회사인 서림개발(주)에 수억원을 지원한 것이 2007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드러난 계열사 돈 횡령·배임과 유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례 모두에서 정 부회장의 비상장 개인회사가 등장하고,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비상장 회사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 부회장의 후계구도 구축에 동원되는 것이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지우'라는 정 부회장(당시 기아자동차 사장)의 개인회사를 중심으로 후계구도를 짜는 과정에서, 기아차 등 계열사 돈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가 드러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처벌받은 사안이다.

현대엠코가 정 부회장의 비상장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을 지원한 것은 2007년 당시 지우라는 비상장 회사를 계열사들이 지원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정 부회장이 팔당호 주변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이유가 그룹 승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리커창** 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등 중국 지도부 내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중국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중앙은행장인 인민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증시 폭락에 제한적 개입 의견을 제안했지만 강력한 증시 부양 조치를 요구한 리 총리가 퇴짜를 놨다고 보도했다.

▲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프랭크린 카운티에서 발생한 **'생방송 기자 총격 살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미국 사회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범인인 베스터 리 플래내건은 자신이 WDBJ 방송사에서 일하던 당시 동료였던 기자 2명을 생방송 중에 총기로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찍은 동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렸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자위대**가 유엔 결의에 따라 집단안전보장 조치에 참가해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정치

▲  휴전선 포격 사태 당시 드러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잠전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메르스 추경 때 나온 '총선용 선심예산'이란 지적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가 반복될 전망이다.

▲ 북한의 대남 업무 사령탑이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표로 참여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27일 "우리는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수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회

▲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과거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

▲ 경찰조사 할 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한 조폭이 덜미를 잡혔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 **강용석**(46) 변호사와 불륜 논란을 일으킨 유명 블로거 A씨가 다른 블로거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오세인)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외국인과 귀화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과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경찰청**은 오는 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27일 밝혔다.



"한류를 수출로"…상하이서 역대 최대 한류박람회 개막 역대 최대 규모의 한류상품박람회가 27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이날 상하이 인텍스(Intex) 전시장에서 개막한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2015'는 한류 중심지인 중화권에서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와 콘텐츠, 서비스 등 한류 파생상품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코트라(KOTRA)와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사흘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한국 기업이 107개사나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LG전자·LG이노텍·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가 준대형 LPG차 시장점유율 목표를 25%로 상향조정한다고 27일 열린 SM7 LPe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 **기아자동차**가 27일 선보인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신형 스포티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스포티지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소개된 스포티지에서는 차별화된 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형 SUV의 돌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모든 계열사에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롯데 계열사별로 차이가 있던 정년(55세·57세·58세)은 모두 60세로 연장된다.

▲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가 남북 관계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보험 제도 개정을 위한 '보장없는 남북경협보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북한측의 규정·제도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철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동차주**가 정부의 소비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떨어졌다.

▲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다시 2%대로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는 1.5%대로 하락했다.

▲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국내 첫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아파트인 인천 'e-편한세상 도화'에 보증금전환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한화건설도 10월 공급될 수원 뉴스테이 사업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청사는 비정규직 인권지옥이었다

경악 수준 인권침해 일상사
분위기 탓하며 '묻지마 폭행'
무급 노동에 상여금도 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앞장서 침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7일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인 세종청사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는 말 그대로 '등잔 밑'이었다"며 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 10개 정부지방청사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는 특수경비원들을 향한 폭행과 불법감시, 일방적인 근무배치 등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같은 침해를 당한 동료의 구제신청을 시도하자 '분위기를 저해시킨다'며 묻지마 폭행까지 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누구나 경악할만한 일들이지만 세종청사에서는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경고파업중인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로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경비원 중 공공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인사이동을 발표하고 다음날 어디로 출근하라는 식의 부당전보가 계속됐다. 병가를 제출한 직원의 보직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 사실상 권고사직을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야간근무 시 무급휴게시간이 5시간이나 되었지만 청사 특성상 긴급상황을 대비해 자리를 마음대로 비울 수 없었음에도 휴게시간으로 계속 두었다. 사실상 무급노동이었다.

이와 함께 특수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 형식으로 세종청사에 근무 중인 청소용역 근로자들도 보호지침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연 4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를 청소하는 근로자들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세종청사만 문제가 아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지방청사 중 시중노임단가를 주는 청사는 한 곳도 없었고 모든 청사에서 노동3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시중노임단가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평균 준수율이 52.6%인 반면 정부청사의 준수율은 절반인 26%에 그쳤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청사의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 장본인인 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관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정작 보호지침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타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세종청사 내의 노동·인권탄압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청소용역 문제를 비롯한 각종 차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청사부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전면 적용하라 "고 요구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美 생방송 '살인사건' 중계

범인, SNS에 살해영상 올려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프랭크린 카운티에서 발생한 '생방송 기자 총격 살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미국 사회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범인인 배스터 리 플래내건(41)은 자신이 WDBJ 방송사에서 일하던 당시 동료였던 기자 2명을 생방송 중에 총기로 살해하면서 살해 장면을 직접 찍은 동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트렸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그는 인터뷰 중인 여기자 앨리슨 파커(24)와 카메라기자 애덤 워드(27)에게 다가가 한차례 총을 겨눴다가 다시 올려 발사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SNS 게시글을 통해 희생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또 범인은 범행 후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자살 노트'라는 일종의 범행선언문을 팩스로 ABC방송에 보냈다.

이 문건에서 흑인인 범인은 백인 증오, 흑인교회에 총기를 난사한 백인 청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2007년 한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총기난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커 등을 살해한 동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방송사에서 일하는 동안 흑인인 데다가 성적지향이 동성애라서 수시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WDBJ 인간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 내가 덜 무뚝뚝했으면 하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빌어먹을 뉴스 디렉터가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하는 독재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폭발을 기다리는 인간 화약통"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인들은 생방송으로 살해 직전의 상황을 생생히 목격한 데다 SNS를 통해 살해 과정까지 눈으로 보게 돼 충격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송병형 기자

中 증시 폭락… 총리-인민은행장 '딴소리'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리커창 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등 중국 지도부 내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중국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중앙은행장인 인민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증시 폭락에 제한적 개입 의견을 제안했지만 강력한 증시 부양 조치를 요구한 리 총리가 퇴짜를 놨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관료들은 또 최근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경제에 다시 신경을 쓰라고 주문한 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증시 폭락 사태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의 균열을 보도한 서방언론은 WSJ만이 아니다. 비지니스인사이더는 시 주석 등 지도부에 이상현상이 보인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고위 관계자나 당 간부들이 대중 앞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위 지도부 안에 분열이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의 보도는 주목된다.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이달 초 원로들의 정치 개입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다른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공산당 원로들의 반대가 상상이상이라며 반대자들을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시 주석이 증시 폭락에 대한 희생양으로 리 총리를 실각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등 증시 폭락 사태는 단순히 경제 위기를 넘어 중국 정치의 위기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재벌개혁 시동

'국회 재벌개혁특위'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2013년 8월 28일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을 맞아 첫 회의 날짜를 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일은 8·28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후 재벌들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삼성편법계승, 삼성서울병원, 최근 롯데 문제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패륜적 경영, 황제경영의 행태를 보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재벌개혁특위를 관통하는 단어는 공평과 공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문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은 제2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제1차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정 재벌개혁에 임할 생각 있다면 국회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오늘 첫 회의에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분과와 행태및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된다. 행태및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의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송병형 기자

北 잠수함 충격… 내년 국방예산 대폭 늘린다

청년 고용·맞춤복지도 증액
총선용 예산·재정악화 우려

휴전선 포격 사태 당시 드러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잠전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메르스 추경 때 나온 '총선용 선심예산'이란 지적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당정 예산협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군이 운용중인 링크 대잠 헬기의 훈련 모습. 우리 군은 포격 사태 당시 북한이 50여척의 잠수함을 전개시키자 잠수함 탐지에 나섰지만 추적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내년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다른 부문의 예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국방예산 외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에 배정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부는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한다.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보육·주거·의료 서비스 등에 예산을 배정한다.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 총선 예산이란 비판이 집중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는 공공·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아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며 전향적 입장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추경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물 공급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도시재생 지원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대전 현충원 확장 등의 사업을 추가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北 김양건 "남북관계 개선 적극 노력"

조선중앙통신 인터뷰
"통일 지향으로 전진"



북한의 대남 업무 사령탑이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표로 참여했던 김양건(사진) 노동당 비서는 27일 "우리는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는 이날 고위급 접촉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북한은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대신 이 같은 기자회견 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비서는 또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은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며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비서는 고위급 접촉의 결과물인 공동보도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한다. 쌍방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이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3항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뢰도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비서의 이날 발언에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朴 대통령·軍지휘부, 中 열병식 참관

외교부 "우호관계 고려"
美 의식… 확대해석 경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우리 군 대표단도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장성급 2명과 대령급 1명 등 총 3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전날 박 대통령은 열병식에 참가할 뜻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대표단도 자연스럽게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군인들이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행진 훈련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를 한국보다 하루 앞서 발표한 중국은 이를 한중 관계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강철동맹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웃국가인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또한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병식이 아닌 전승절이 가지는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일 간 대립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과 전승절 행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송병형 기자

韓·美, 새 '작계 5015' 수립… 北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

유사시 선제타격 개념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수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새로운 작계의 특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은 군 작전에 새로운 작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군 제대별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습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 개전 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사상자 규모가 작년 연습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서명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상고법원 도입' 갈등, 법조계서 정치권으로 확대

이기택 후보자 "완전하지 않지만 현실적 대안"

과중한 상고심 3심재판 업무를 줄이고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상고심 정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리로 팽팽한 줄다리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 19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을 통해 우회 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무부가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인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택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의 시각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상고법원 설치는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법학자들 100명이 지난달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다. 위헌 여부 가능성이 있다"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대법관 증설 10문 10답' 홍보물을 만들어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다.

범법조계의 법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논란이 법조계에서 정치권으로 확대된 데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대선 불법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일부 무죄 의견이 있었음에도 유죄로 확정하면서 야당 발 대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불렀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계기로 상고법원 설치에 반발, 대법원을 압박할 것이란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두 사건과 상고법원 사이의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론되는 이유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와 법관 다양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상고법원이 문제해결을 위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막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농민들 위협하는 수입쌀?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에 미국산 수입쌀이 놓여있다. 이날 전여농은 밥쌀용 쌀 수입, 무더기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檢, 신상수 소환 조사

<리솜리조트 회장>

농협 특혜 의혹

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된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신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에서 리조트 건설·운영 자금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회삿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런 식으로 100억원 안팎의 장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쓴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농협에서 총 1649억원을 차입했고 이 가운데 14%인 235억원을 상환했다. 특히 계속된 영업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기업의 생존에 의문이 제기되던 2010년 이후에도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자금을 수혈받아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리솜리조트 본사·계열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재무·회계 자료와 회사 임직원들의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신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빼돌린 돈의 규모·사용처와 함께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농협 수뇌부와 정치권 인사에게 대출 청탁을 했는지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여권의 A 전 의원과 전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B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신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미란 기자

'현궁 개발비리' 육군 중령 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허위 확인서 작성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모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육군 중령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박 중령은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개발·도입 과정에서 비리를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박 중령은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납품받은 장비가 계약사항을 충족시킬 정도가 아닌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써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총 80억3000만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와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았다.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유도무기인 현궁의 파괴력을 측정하는 장치이고, 전차자동조종모듈은 현궁의 목표물인 전차에 장착해 자율주행이나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등 '현궁'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관 4~5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출입이 통제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LIG넥스원 건물. /연합뉴스

합수단은 내부피해계측 장비에 일부 부품이 빠져 작동할 수 없는데도 '양호'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리고 납품사 측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단서를 확보했다.

전차자동조종모듈 세트도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박 중령 등은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납품 단가가 부풀려진 정황이다.

합수단은 지난 15일 체포한 박 중령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사 간의 부정한 금품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LIG넥스원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현궁 성능평가 장비 납품 비리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선거법 위반' 충북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중독예방은 공감·사회분위기가 좌우"

[인터뷰] 독일 뤼벡대 한스 위르겐 럼프 교수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중독에 해당되며 4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9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도 모르게 대한민국은 이미 중독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그 폐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독은 이미 글로벌 이슈다. 나라마다 중독폐해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련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중독예방 국제석학포럼-균형과 조절'을 27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에 한국을 찾은 독일 뤼벡 대학교 한스 위르겐 럼프 교수는 치료를 받지 않고도 중독증상이 완화되는 사례를 발표했다. 뇌의 이상증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중독 문제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스스로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노력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 한스 위르겐 럼프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인터넷 중독이 알코올, 마약 등 다른 중독들의 '치료 없는 회복(untreated remissions)'과 유사한 사실이 발견된다고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회복되는 중독자들이 있다는 것은 중독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수개월 혹은 수년간 인터넷 게임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다가 사회적인 지지나 삶에 변화가 생기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넷 중독의 경우 '치료 없는 회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중독에서 성공적으로 '치료 없는 회복'을 보인 사람들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독한 게임중독자도 주위 관심만으로 회복

"'치료 없는 회복'이란 인터넷 중독이던 사람이 적어도 12개월 이상 인터넷사용장애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에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중독자가 특별히 어려운 경험이나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 발표 중에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치료 없는 회복의 계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사례나 연구 등 이를 뒷받침 할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극적 조기개입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나 의사 혹은 전문가가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인감 없이 충분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에 대한 효과는 주로 약물이나 알코올중독 연구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연구그룹이 수행한 시범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해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 인터넷 중독에 '치료 없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특히 한국의 상황적 특성에 맞춰서 더 시행돼야 하거나, 한국에서만 추가로 시행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은 사회적으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자의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 사람을 돌봐주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교사나 부모가 개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신이 인터넷 중독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국인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걱정이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전문가일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가족도 좋습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檢, KT&G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13일 S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며 KT&G 수사를 본격 시작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지정을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높게 쳐주는 대가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기간 제조본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이듬해 퇴임했다.

KT&G는 발주수량과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협력업체에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한다. S사는 2007년쯤부터 이런 식의 거래를 하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KT&G에서 올렸다. S사 매출은 2008년 164억원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6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씨는 KT&G 임원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S사의 납품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KT&G-S사-B사로 이어지는 거래관계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씨는 민영진(57) 전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뒷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협력업체들 가운데 팁페이퍼(필터와 담뱃잎을 결합하는 종이) 제조업체 U사·J사도 압수수색해 KT&G 전현직 임원들과 뒷거래를 했는지 수사중이다.

KT&G가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된 사건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

당시 KT&G 상무 이모(54)씨 등 임원 2명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물 중 2억원을 J사 대표에게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U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로비자금의 출처와 민 전 사장 등 다른 임원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변협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시 중징계"

전관예우 근절 위한 방침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을 중징계 할 방침이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2일쯤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해 경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외부의 판사,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변협 회장은 이 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징계 양정은 회장 재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김서이 기자

서울시, 방화동→올림픽대로 접속도로 내달 1일 개통

서울시는 방화동(방화대로)에서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다음 달 1일 오전 4시에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화동에서 여의도 방향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면 개화IC와 가양대교 남단 교차로 등 먼 곳으로 우회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접속도로를 바로 이용하면 된다.

지난달 개통된 올림픽대로→방화동 접속도로를 이용하면 방화대교 남단 88분기점 아래 강서한강공원 방면에서 개화나들목으로 나와 양천로27길을 이용하거나 가양대로 남단 교차로 등으로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는 강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

시는 서남권 지역의 주간선도로인 방화대로와 올림픽대로가 바로 연결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마곡지구의 급격한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교통난을 해결할



방화터널 → 올림픽대로 접속도로.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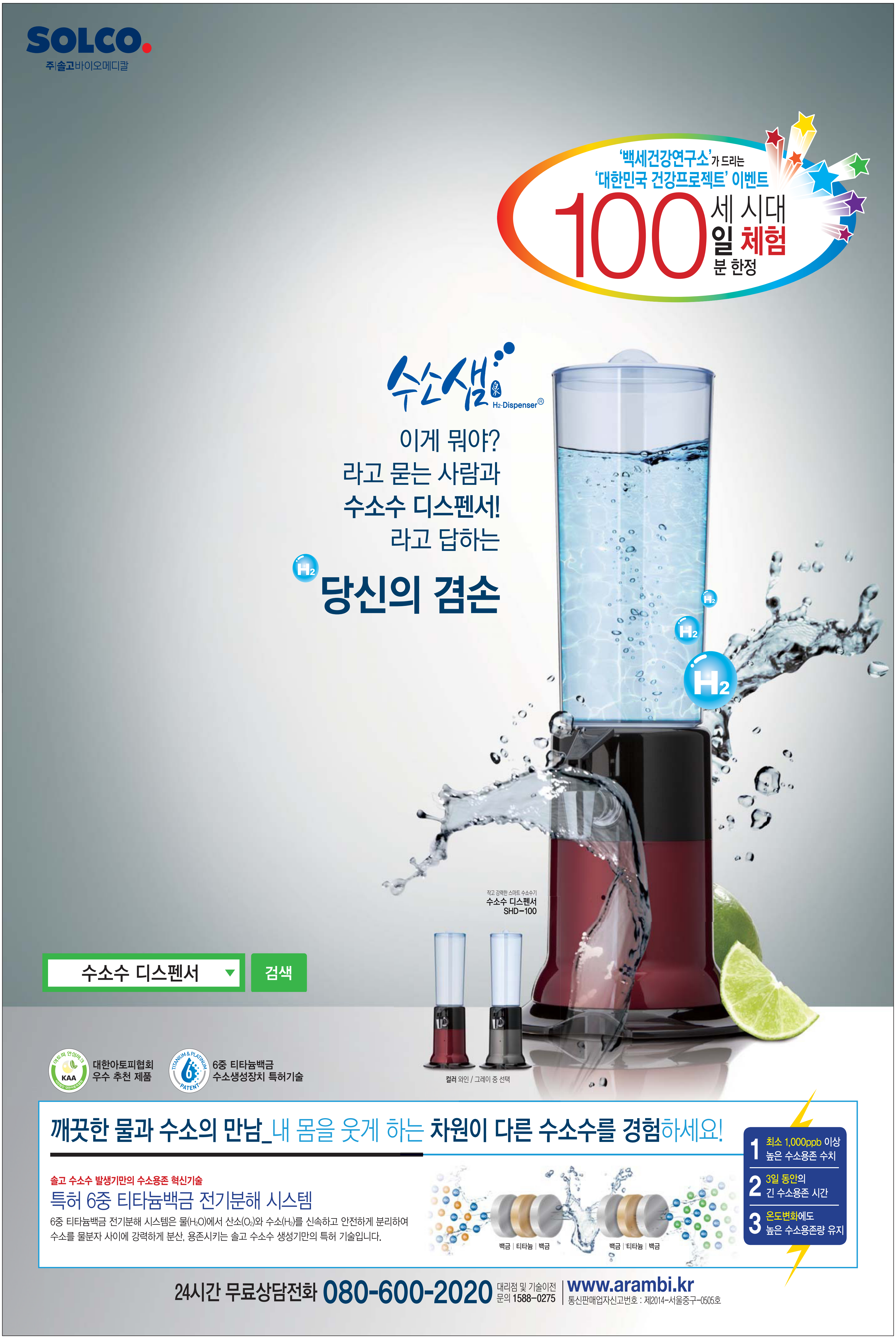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화대교 접속대로는 2005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7월 올림픽대로→방화동 방향 램프의 교각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지연된 사연도 있다.

시는 사고 후 교량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접속도로 공사에는 사업비 총 1098억원이 투입됐다. 도로의 연장은 3030m, 폭은 5.75~18m, 접속교량 765m, 터널 949m, 일반도로 1316m 규모다.

단절된 방화대로와 올림픽대로를 바로 연결하기 위해 조성된 방화터널(가칭)은 치현산 하부를 통과한다. 터널 상부는 유턴을 위한 차로가 확보됐으며 보도도 함께 개설됐다. /김서이 기자



SOLCO.
㈜솔고바이오메디칼
'백세건강연구소'가 드리는
'대한민국 건강프로젝트' 이벤트
100 세 시대
일 체험
분 한정
수소샘 H2-Dispenser®
이게 뭐야?
라고 묻는 사람과
수소수 디스펜서!
라고 답하는
당신의 겸손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수소수 디스펜서
검색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2O)에서 산소(O2)와 수소(H2)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백금 | 티타늄 | 백금
백금 | 티타늄 | 백금
1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2 3일 동안의 긴 수소용존 시간
3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7화 정당방위 >

대법원 2007.7.4.선고 99다4341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총수 2세는 내부거래로 먹고산다?

재벌 계열사 5곳 중 2곳 내부 거래비중 30%↑ 비상장계열사, 상장 3배

재벌의 비상장 계열이거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의 3배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8개(소속 계열사 1347개)의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4%로 2013년에 비해 0.02%포인트 줄었다.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1천억원으로 4천억원 감소했다.

전체 재벌 계열사 5곳 중 2곳(37.3%)은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었다. 전체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30만원 이상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 비상장 계열사에서 내부거래가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비상장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24.5%였다.

재벌 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7.9%(81조7000억원)인 반면에 비상장사는 23.3%(99조3000억원)에 달해 3배 수준으로 계산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많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 51.8%를 차지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11.2%, 30% 이상은 19.5%, 50% 이상은 42.7% 등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SK(28.0%), 포스코[005490](19.4%), 현대차(18.8%), 한솔(16.4%), 태영그룹(16.2%) 순서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금액으로는 SK(47조4000억원), 현대차(31조1000억원), 삼성(25조3000억원), LG(16조4000억원), 포스코그룹(13조7천억원)이 많았다.

SI 업종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60.0%에서 지난해 59.9%로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36.7%에서 33.5%로 약간 낮아졌다.

광고대행업이 포함된 전문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에서 31.0%로 크게 낮아졌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코스피 1900선 탈환, 코스닥 670선 회복 27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3.91포인트(0.73%) 오른 1908.00으로 코스닥지수는 6.27포인트(0.94%) 오른 673.71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개인·기관 'Buy'… 1900선 탈환

신흥국 증시 안정 되찾아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900선을 탈환했다.

27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3.91포인트(0.73%) 오른 1908.00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금융당국의 기준금리·지급준비율 동반 인하로 신흥국 증시가 안정을 되찾은데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리가 다소 풀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날 외국인은 3470억원 어치를 내다팔았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12억원, 1190억원 상당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등락은 엇갈렸다.

한국전력(0.71%), SK하이닉스(6.13%), 아모레퍼시픽(5.26%), 제일모직(6.80%), SK(2.91%) 등은 강세였고, 현대차(-2.00%), 현대모비스(-1.47%), 기아차(-0.51%)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교차했다. 음식료품(2.00%), 섬유의복(6.00%), 화학(1.87%), 비금속광물(2.83%), 유통업(1.87%), 통신업(1.15%) 등은 올랐다.

반면 의약품(-0.76%), 철강금속(-0.80%), 기계(-0.54%), 운송장비(-0.99%), 운수창고(-0.80%), 증권(-1.40%)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6.27포인트(0.94%) 오른 673.71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400억원 상당을 팔고 개인은 135억원, 기관은 20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김민지 기자

자동차株, 투자심리 개선되나

"소비세 인하로 회복" 전망에도 주가 하락

자동차주가 정부의 소비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모멘텀(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자동차 적용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면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하락해 소비자 판매가격은 1.8%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공장도가격 2000만원인 자동차는 43만원, 1500만원의 자동차는 32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각각 기대된다.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악재에 짓눌린 자동차주의 투자심리도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한시적으로 이뤄질 경우 선수요를 유발해 내수는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조 연구원은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될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은 약 1.8% 하락한다"며 "9월 출시 예정인 아반떼, 스포티지 등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출 환경은 그리 녹록치 못하다.

중국 경영환경 악화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브라질 등 이머징 마켓 위축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조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원·유로 환율상승과 신차효과 등이 수익성 악화요인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수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이재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리스크가 지난 두 달간 선반영 됐고, 위안화 약세로 인한 환율 수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컸다"고 분석했다.

㎏ 그러나 현대차 주가는 이날 2% 떨어졌고, 기아차도 0.51% 하락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銀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시 2%대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다시 2%대로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는 1.5%대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96%로, 6월(연 3.01%)보다 0.05%포인트 떨어지면서 2%대에 진입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4월(연 2.81%)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섰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는 연 3.1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내렸다. 3.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52.8%를 차지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3.5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비은행 금융권 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11.75%로 전월보다 0.53%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는 은행의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이 연 1.54%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내렸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은 연 1.68%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비은행 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17%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낮아졌다. /차기태 기자

기관투자가 '해외증권 투자' 7년반만에 최고

기관투자자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규모가 7년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1153억 달러로 집계돼 3월말보다 9.1%(96억 달러) 늘었다. 이는 2007년말 1165억 달러에 이르렀던 2007년 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2분기의 증가액도 지난해 2분기의 99억9천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보험사 투자잔액이 39억9천만 달러 늘었고, 자산운용사는 30억3천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사도 2분기 중 투자잔액이 20억7천만 달러 늘어났다.

투자 종목별로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투자 확대가 두드러졌다.

2분기말 채권에 대한 투자잔액은 436억3천만 달러로 1분기말보다 65억6천만 달러 늘었다. /차기태 기자

대림산업, 뉴스테이 1호 '보증금전환제' 도입

입주 6개월전 6개구간 중 선택
한화건설, 수원서 도입 검토 중


'e-편한세상 도화' 지구 전경.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국내 첫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아파트인 인천 'e-편한세상 도화'에 보증금전환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이어 한화건설도 10월 공급될 수원 뉴스테이 사업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7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e-편한세상 도화'에 보증금전환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전환보증금 제도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임차인이 매달 지불해야하는 월세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입주자들은 입주 6개월 전에 기준 표준형부터 가격별 5개 보증금전환구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기존 보증금은 5000만원, 월세는 43만원이다. 여기에 보증금전환 1구간을 선택하면 보증금이 800만원 인상되는 반면 월세는 2만원 하락한다. 이어 입주자는 ▲6600만원, 39만원(2구간) ▲7400만원, 37만원(3구간) ▲8200만원, 35만원(4구간) ▲9000만원, 33만원(5구간)도 선택 가능하다.

이 밖에 72㎡는 기본 보증금 6000원과 월세 48만원에서 구간별로 보증금 1000만원 인상 시 월세는 2만5000원 인하된다. 같은 방식으로 84㎡는 기본 보증금을 6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오를때마다 월세(기본 55만원)가 3만5000원 감소된다.

또한 입주자는 2년 마다 재계약을 할 경우 타 구간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연간 인상률은 국토교통부의 제한선인 5%보다 낮은 3%를 적용받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보증금전환제도가 입주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익성보다는 사업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이 단지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53가구 규모다. 이중 뉴스테이는 2105가구다. 대림산업은 28일부터 이 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청약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건설도 오는 10월 수원에 공급할 예정인 뉴스테이 단지에 보증금전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동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전용 59~84㎡ 총 2400가구다. 이 단지는 주택기금과 한화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한 리츠가 수원 권선동에 건설예정인 아파트 2400호를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택형별로 보증금은 3000만~6000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선이다. 이는 현재 주변 시세와 비슷하지만 2년 뒤 입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실제 해당 지역의 연평균 월세 인상률은 연 10%에 달한다.

한화건설은 최근 이 단지에 회사의 대표적인 주택브랜드인 '꿈에그린'을 적용키로 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보증금전환제도를 도입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통과된데 이어 1호 사업에서도 업체 스스로 보증금전환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1만여 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대치 SK뷰' 1순위 마감… 최고 49대 1

3.3㎡당 평균 3902만원

SK건설이 서울 강남구에 공급한 '대치 SK뷰(VIEW)'가 최고 49.7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1순위에서 모든 주택형의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26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개 주택형, 아파트 30가구에 총 1519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렸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84㎡A 주택형은 7가구 모집에 1순위 당해지역에서 348명이 몰렸다. 23가구 모집를 모집하는 84㎡B 주택형은 1순위 당해지역에서 944명이 접수하며 4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명덕 대치 SK뷰 분양소장은 "이 단지는 지하철3호선 대치역 역세권에 있어 명문학교가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난 21일 '대치 SK뷰' 견본주택에서 관람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SK건설 제공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하는 등 고객 혜택을 높여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2층, 지상 10~20층 아파트 4개동 총 239가구 규모다. 오는 9월 2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902만원이다. 계약금 2회 분할납입과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김형석 기자

롯데건설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분양

내달 견본주택 오픈

롯데건설은 오는 9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91㎡ 총 1169가구 규모다.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경의선 야당역(오는 10월 개통 예정)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약 45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자유로, 제2자유로, 동서대로 등을 통해 서울, 김포, 일산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견본주택은 9월 중 경기 파주시 야당동 920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거미줄 교통망·교육 인프라 탄탄… 세종 최고 입지

현대 '힐스테이트 세2차'
59~123㎡ 1631가구 규모
생태연못 등 친환경 조경


'힐스테이트 세종 2차'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28일 세종시 다정동에서 '힐스테이트 세종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전체 25개동, 전용면적 59~123㎡ 총 163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94가구 ▲74㎡ 139가구 ▲84㎡ 604가구 ▲98㎡ 6가구 ▲101㎡ 502가구 ▲105㎡ 10가구 ▲107㎡ 12가구 ▲113㎡ 60가구 ▲123㎡ 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가까워 세종시와 KTX 오송역, 대전 등 주요지역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간선도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당진~대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반경 500m 내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와 고등학교 1개가 예정돼 있다. 단지 동쪽으로 형성되는 상업시설 내에 학원 중심가가 형성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생태연못, 잔디광장, 테마정원 등 친환경 쉼터와 순환 산책로, 친환경 체험시설인 텃밭 등을 갖춘 조경 공간이 조성된다.

전 가구를 남측향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높였다. 바닥 충격음 완충재를 20㎜에서 30㎜로 강화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했다. 아이들의 학습과 감성 발달을 위해 자녀용 방은 '창의력 컬러벽지'를 도입했다. 욕실에는 노인과 어린자녀의 안전을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이 적용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사우나가 들어선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남·녀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공간인 키즈·맘스카페, 입주고객의 교류를 증진시켜주는 동호회실도 배치됐다.

분양일정은 오는 9월 1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일반특별공급과 특별공급 당첨자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3일과 5일에는 각각 1·2순위 청약이 계획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며, 계약은 15~18일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오랜만에 대형사간의 컨소시엄으로 분양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기본 세종시내 수요와 인근 대전·충청권, 수도권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신형 스포티지, 소형 SUV시장 길 틈 없다

연비 경쟁력 떨어져 가격 인상도 '악재'


신형 스포티지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27일 선보인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신형 스포티지가 가격과 연비경쟁력에서 티볼리 광풍을 잠재울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소형 SUV 시장에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쌍용차 티볼리와 강력한 연비로 무장한 르노삼성차의 QM3, 한국지엠 트랙스 등과 비교해 애매한 연비로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신형 스포티지는 R2.0 디젤엔진과 U2 1.7 디젤엔진 등 2종으로 출시된다. R2.0 디젤 모델은 유로6를 충족시켰다. 연비는 14.4㎞/ℓ다. U2 1.7 디젤 모델은 다운사이징된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DCT)를 탑재했다.

기존 스포티지는 경쟁사들의 신차에 밀려 부진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스포티지 판매량은 3254대로 전년 동월 대비 32.3%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은 2만4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3% 감소했다.

신형 스포티지 가격 인상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R2.0 디젤엔진은 유로6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의 새로운 시스템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판매가부진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기아차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기아차의 한 딜러는 "다음주부터 사전계약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은 미정이다. 구체적인 제원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티볼리는 지난달 4011대가 팔렸다. 전월 보다 10.5% 판매량이 증가했다. 쌍용차는 티볼리 디젤 합세로 흥행 2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

티볼리 디젤은 유로6 e-XDi160 엔진이 적용돼 최고출력 115마력, 최대토크 30.6㎏·m의 힘을 낸다. 복합연비는 15.3㎞/ℓ다. 티볼리 디젤의 판매가격은 2045만~2495만원이다.

연비 지존(18.5㎞/ℓ)을 자랑하는 르노삼성의 QM3 1.5리터 디젤 모델은 올해 1~7월 내수 시장에서 1만2549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QM3 가격은 2200만~2490만원이다.

한국지엠은 최근 유로6를 충족하는 트랙스 디젤을 출시했다. 독일 오펠사의 4기통 1.6ℓ 엔진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최고출력 135마력, 최대토크 32.8㎏·m의 힘을 낸다. 연비는 14.7㎞/ℓ다. 가격은 2195만~2495만원이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6000개 만든다

채용·취업지원 방안 발표 '고용 디딤돌' 신설 운영 2020년까지 6만명 채용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2016~2018년 해외 인턴십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과 병행한 추가 채용 등을 통해 3만6000명을 채용한다.

또 채용과는 별도로 ▲청년 구직자의 교육-실습-채용과 협력사 지원을 아우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 디딤돌' 신설 운영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자동차 분야 벤처와 소셜벤처 등 창업지원 확대▲계약학과·연구장학생·마이스터고 등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사업 등에 1200억원을 투자해 청년 구직자 1만2000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 채용·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5700여명, 2020년까지 총 6만여명을 채용한다. 국·내외 인턴을 포함한 연평균 채용인원은 약 1만2000명이다. 연초 현대차그룹이 발표했던 올해 채용계획 9500명과 비교할 때 25%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한 추가 채용규모는 연간 약 2500명으로 3년간 7500명, 5년간 1만2500명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까지 약 1700명 규모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국내 인턴십 운영뿐 아니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3년간 650명, 5년간 최대 1100명의 대학생에게 현대기아차, 모비스 등 주요 그룹사 해외 생산·판매법인내 인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법인을 위주로 한 그룹사·협력사 채용과 연계해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인턴 대상자는 전공계열과 무관하게 지역별 해당언어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취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해외취업 욕구가 큰 인문계 출신을 우대해 이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현대·기아차, 7월 해외서 30만대도 못 만들어

중국서 전월比 54.1%↓ 러시아·브라질서도 주춤 최근 3년간 최저 수준

현대·기아자동차의 7월 해외공장 생산이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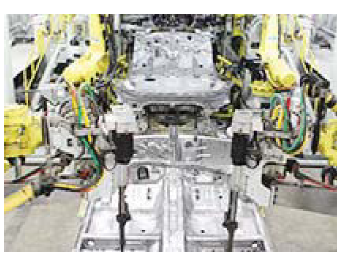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이달 자동차 통계월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중국과 미국 등 8개국의 해외공장에서 28만9753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다.

전년 같은 기간의 33만7278대보다 14.1%(4만7525대) 감소했다.

현대차는 이달 생산 대수가 20만644대로 전년 동기보다 13.9% 줄었다.

기아차는 8만9109대로 14.4% 감소했다.


현대차 중국공장 생산라인. /현대차 제공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중국 시장의 부진으로 중국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양사는 지난달 중국에서 합쳐서 8만1466대를 생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현대차의 생산량(8만6203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양사의 합계 생산량은 작년 동기(13만7223대)보다 40.6% 감소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8만6203대)보다 43.2%나 줄어든 4만8966대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현대차의 중국 공장 월간 생산량이 5만대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2011년 2월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생산 대수는 3만2500대로 전년 같은 기간(5만1020대)보다 36.3% 감소했다.

현대·기아차의 7월 중국 생산량은 전월(17만7643대)과 비교하면 54.1% 줄었다.

중국 외에 큰 시장인 러시아와 브라질 내 생산도 루블화와 헤알화의 약세 영향으로 감소했다.

러시아는 1만2320대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으며 브라질은 1만105대로 11.7% 줄었다.

러시아와 브라질 공장의 생산 물량은 전월에 비하면 각각 39.3%, 34.6% 급감했다. /정용기 기자


26일 경북 고령 다산면 주물공단에서 포스코1%나눔재단의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포스코 제공

고령 주물공단 메운 국악·재즈 하모니

포스코 1%나눔재단 근로자 초청 음악회

포스코1%나눔재단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 위치한 주물공단 일대에서 근로자 200여 명을 초청해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우영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우영음은 산업 역군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음악회다.

전날 공연이 열린 고령 다산 주물공단은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소속 주물 업체를 비롯해 100여 개에 달하는 주물 관련 업체가 입주해있다.

공연은 국악과 재즈 등이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음악을 컨셉으로 판소리 명창 안숙선,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 펑키 벗 브라스 밴드, 배다해, Feel' 굿, 우륵 청소년가야금연주단 등이 음악을 선보였다. 우영회 공연 일정은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벤츠, 더 뉴 메르세데스-AMG C 63 국내 상륙

출고가 1억16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7일 The New Mercedes-AMG C 63과 The New Mercedes-AMG C 63 S Edition 1을 국내 출시했다.

하이엔드 후륜구동 스포츠카 The New Mercedes-AMG C 63은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The New Mercedes-AMG C 63 출시 기념으로 1년 동안만 생산되는 The New Mercedes-AMG C 63 S Edition 1은 국내에 10대 한정 판매된다.

The New Mercedes-AMG C 63은 최고 출력 476마력(5500~6250rpm), 최대 토크66.3kg.m(1750~4750rpm)의 힘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100㎞/h를 4.1초에 주파한다. 가격은 1억16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The New Mercedes-AMG C 63 S Edition 1은 최고 출력 510마력(5500~6250rpm), 최대 토크 71.4kg.m(1750~4500rpm)의 힘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4.0초에 주파한다. 가격은 1억355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정필 기자

LG계열사, 기술력 앞세워 신사업 '스피드 업'

LG전자·LG이노텍, 전기車 '두각'
LG디스플레이, OLED '드라이브'



LG디스플레이 플렉시블OLED. /LG디스플레이 제공



LG전자가 'EVS'서 선보인 전기자동차용 경량 플랫폼. /LG전자 제공

LG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공고한 협력을 유지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OLED 분야 기술 선점과 대규모 투자로 시장의 판세를 바꾸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3년 신설한 VC(자동차부품)사업본부를 앞세워 스마트카 시대의 핵심부품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LG전자는 전자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그룹 등 글로벌 유명 완성차 업체들과 기술협업 등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LG전자는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의 전략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LG전자는 폭스바겐 그룹이 기술 혁신 가속화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미래전략(FAST)' 프로그램의 핵심 분야인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술' 분야를 담당한다. FAST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는 총 44곳으로 국내에서는 LG, 포스코, 코아비스 뿐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말 메르세데스 벤츠와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개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올해 초 열린 'CES 2015'에서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디터 체체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을 만나 회의를 나누는 등 양사는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구글의 새로운 프로젝션 표준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AVN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음성과 영상을 전송해 송출하는 기술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 같은 LG전자와 구글의 협업은 구글 무인주행자동차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구글은 LG전자가 무인차 프로젝트의 글로벌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기술력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

향후 LG전자는 전기차 핵심부품, 자동차 엔지니어링 분야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차량용 전장부품 관련 매출을 꾸준히 늘리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량 부품의 전자화를 예측하고 2006년부터 사업 기반을 다진 LG이노텍은 현재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모터, 센서, 카메라모듈, 무선통신모듈, LED 등과 전기차 부품인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전력변환모듈 등 총 20여 종의 차량 전장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연구개발(R&D), 생산, 마케팅 등 전 부문에서 차량 전장부품에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OLED를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의 지배력을 굳힌다는 방침이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에서 OLED로 투자 중심 이동을 선언하며 2018년까지 대형·플렉서블 OLED를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OLED 분야에서는 종이처럼 얇은 월페이퍼 디스플레이와 투명 TV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한다. 중소형 OLED에서는 플렉서블 OLED에 집중해 웨어러블 시장에서 1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지난해 87억 달러(약10조 2816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2년 283억 달러(약 33조4449억원)로 성장해 미래 디스플레이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LG,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중심 2100명 규모
9월 1일부터 접수

LG그룹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2000명이 넘는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27일 LG그룹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LG 통합 채용포털 사이트인 'LG 커리어스(http://careers.lg.com)'를 통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LG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2100명 수준이다. 이번 공채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상사, 서브원 등 주요 계열사들이 대상이다.

최대 3개 회사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인적성 검사는 한 번만 치르면 된다. 채용절차는 주로 '서류-LG 웨이핏 테스트(Way Fit Test·인성검사) 및 적성검사-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인적성 검사는 오는 10월 10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웨이핏 테스트'는 'LG 웨이'에 맞는 개인별 역량 또는 직업 성격적인 적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342문항에 50분 간 진행됐다. 적성검사는 신입사원의 직무수행 기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로 140분 간 총 125문항이 출제됐다.

LG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전 채용과정의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없는 공인어학성적과 자격증, 수상경력, 어학연수, 인턴, 봉사활동 등 스펙 관련 입력란, 주민등록번호, 사진, 가족관계 현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란을 없앴다.

공인어학성적과 자격증은 해당 역량이 필요한 직무 지원자에 한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성검사에 한국사와 한자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지원자들이 평소 한국사와 한자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공 분야와 인문학적 소양의 결합을 통해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췄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사의 경우 암기가 필요한 지엽적인 문제 보다는 주요 역사적 사실을 인지·이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어휘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한다. 한자의 경우 예제 풀을 채용포털 'LG 커리어스(http://careers.lg.com)'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삼성전자가 소개하는 '스마트 쇼핑'의 미래는?

IFA 2015서 스마트 사이니지 제품군 공개

삼성전자는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5에서 미래형 '스마트 쇼핑' 스타일을 제시하는 스마트 사이니지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사이니지 △스마트 사이니지 TV △아웃도어 스마트 사이니지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사이니지 솔루션을 활용해 '스마트쇼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래형 쇼핑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IFA 2015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는 투명 OLED는 세계 최고 수준의 45%의 투과율과 풀HD 해상도를 갖췄다. 삼성전자는 터치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사이니지를 활용해 의류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 피팅 솔루션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모델이 IFA 2015에 공개될 미러 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또 거울과 같은 화면에 사전 입력한 개인 프로필, 피부 타입, 날씨, 스케줄에 따라 뷰티 관리 방법과 추천하는 메이크업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미러(Mirror) 디스플레이도 공개한다. 미러 디스플레이는 첨단 반사 패널을 적용해 일반 거울과 비슷하게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LCD 기반 사이니지 대비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 LED 사이니지도 선보인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밝기를 높이고 방수 방진 기능을 탑재한 24형 소형 아웃도어 사이니지와 올인원 타입의 75형 대형 아웃도어 사이니지 등을 각각 공개한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4단 접이식 '롤리키보드' 공개

휴대성·편의성 극대화

LG전자는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5'에서 세계 최초 4단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 '롤리키보드'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이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쓸 때, 장문의 타이핑도 손쉽게 하길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

'롤리키보드'는 4단으로 접으면 자석의 힘으로 2.5㎝ 두께의 막대 형태로 변형돼 휴대성이 뛰어나다. 별도 전원 키는 없지만 펴고 접는 동작만으로 전원을 자동으로 온·오프 할 수 있다.

또 듀얼 페어링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2개 기기를 블루투스로 동시에 연결해 키보드 변환버튼으로 바꿔가며 사용 가능하다.

LG전자는 '롤리키보드'에 최대 10인치 태블릿까지 세워 놓을 수 있는 접이식 거치대를 내장했다. 사용자가 내장된 거치대를 펴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올려 놓고 시야각을 확보한 채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했다.

'롤리키보드'는 AAA 건전지 하나로 하루 평균 4시간 사용 기준, 약 3개월동안 사용 가능하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MS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과 호환된다. 색상은 블랙, 실버 두 가지. 9월말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metro 생활광고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핫 !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 ㎡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격 150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길동역 ,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 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 ㎡연면적 2,000 ㎡ 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르노삼성, 도넛 LPG탱크 탑재 'SM7 LPe' 돌풍

3주만에 700대 계약 완료
그랜저보다 350만원 저렴




SM7 LPe(왼쪽)는 도넛탱크 방식으로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LPG 연료통을 탑재해 현대차 그랜저보다 적재 공간이 훨씬 넓다.



"SM7 LPe 출시 3주만에 700대 사전계약에 힘입어 준대형 LPG차 시장점유율 목표를 20%에서 25%로 끌어올렸다."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은 27일 서울 장충동 제이그랜하우스에서 열린 SM7 LPe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SM7 LPe 출시 3주만에 700대 계약을 성사시킨 데 따른 르노삼성의 새로운 목표다.

르노삼성은 3일 도넛탱크가 적용된 SM7 LPe를 출시했다. SM7 LPe는 르노삼성이 개발한 LPLi(LPG 액상 분사) 기술과 도넛탱크 기술이 특징이다. 특히 도넛탱크는 LPG(액화석유가스) 연료통을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탑재해 경쟁 차종 대비 적재 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연제현 르노삼성 상품전략팀장은 "현대자동차 그랜저는 트렁크에 휠체어, 유모차 등이 들어가지 않고 골프백도 2개만 들어간다"며 "SM7 LPe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물론 골프백도 4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도넛탱크의 안전성 문제도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불식시켰다.

연 팀장은 "SM7 LPe는 우선 기존 보다 0.5㎜ 두께가 늘어난 3.5㎜의 탱크 강판을 적용했다. 이는 더 가볍고 튼튼하다. 두 번째는 충돌 안전성이다. 르노삼성 도넛탱크는 메인프레임 상단에 얹혀 있는 구조라서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출시 3주만에 700대가 판매된 SM7 LPe는 준대형 LPG시장의 월 평균 판매의 약 40% 해당한다고 르노삼성은 전했다. SM7 LPe의 가격은 2550만원이다. 이는 현대차 그랜저 LPG 차량 보다 350만원 저렴하다.

SM7 LPe는 LPG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기존 SM7 노바 SE25 트림의 기본 품목에 LE25 트림의 앞좌석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 뒷좌석 열선시트, 동승석 파워시트, 전방 경보장치 등을 적용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 l.co.kr



KT-LG전자, IPTV 내장 일체형 PC 공개 KT는 27일 KT 사옥에서 열린 '올레tv 올인원' 출시 간담회에서 IPTV 셋톱박스가 탑재된 일체형 PC '올레 tv 올인원'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IPTV와 PC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멀티 플레이어로 오는 31일 KT 전국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에서 정식 출시되며, 28일부터는 올레닷컴에서 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왼쪽부터) 최기영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이필재 KT 미디어사업 본부장, 이상윤 LG전자 B2B 그룹 전무,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제공

생활가전 렌탈3사와 스마트홈 사업 맞손

SKT
서비스 활용 수준 높아져
연동 렌탈 서비스 관리도



2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왼쪽부터)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TF장, 최병준 청호나이스 환경기술연구소장, 이복수 동양매직 렌탈마케팅부문장, 김준환 교원웰스사업본부장이 스마트홈 사업제휴 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국내 생활가전 렌탈 전문업체인 교원웰스, 동양매직, 청호나이스와 스마트홈 제품 공동 개발 및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SK텔레콤은 스마트홈 서비스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특히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동된 렌탈 서비스는 렌탈 전문업체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렌탈 공기청정기의 경우 가정 내 및 주거 지역의 공기질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기기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SK텔레콤과 3사는 이르면 10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 대중적인 제품에 스마트홈 기능을 적용한 후 적용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출시된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가전·비가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조사들의 제품과 연동해 외부에서 제품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25개 이상의 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연내 20개 이상의 제품과 제품군이 추가될 예정이다.

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 TF장은 "대표적인 생활가전 렌탈 전문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의 활용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홈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과 연동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

"원하는 제휴처 최대 4배 혜택 누리세요"

SKT 'T매니아' 출시



SK텔레콤은 고객이 월정액 3300원을 내고 영화·커피·베이커리·쇼핑 카테고리 중 원하는 제휴처를 선택하면 6000원에서 최대 1만2000원 상당의 패키지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가치 혜택 서비스 'T매니아'를 27일 출시한다.

서비스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소비 패턴에 따라 매월 1회 제휴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 카테고리를 선택한 고객은 1만원 상당의 메가박스 영화 예매권 1장과 팝콘 콤보 2000원 할인권 1매를 매월 제공 받을 수 있다.

커피 카테고리를 선택한 고객은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1잔 교환권과 아메리카노 50% 할인권 1매를, 베이커리 카테고리를 선택한 고객은 파리바게뜨 5000원 상품권 1매와 지정된 우유식빵 교환권 1매를 매월 제공 받게 된다.

쇼핑 카테고리를 선택한 고객은 매월 7000원 상당의 11번가 모바일 플러스 쿠폰과 배송비 2000원 할인 쿠폰 1개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 누구나 올해 말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LGU+, 셋톱박스 없는 '일체형 PCTV' 선봬

LG유플러스는 '일체형 PCTV'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출시하는 일체형 PCTV을 통해선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U+TV의 최대 163개 인기 프리미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1000여편의 무료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12만여편의 주문형비디오(VOD)도 포함된다.

LG전자가 개발한 해당 제품은 컴퓨터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구현했다. 27인치 시네마스크린이 적용돼 영화나 드라마 시청시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고 어느 각도에서든 균일한 화면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홈 메뉴에서 5개 채널을 동시에 한 화면에서 시청할 수 있는 '5채널' 서비스를 제공해 지상파, 프로야구, 홈쇼핑, 골프, 경제 등 중요 카테고리별로 큰 화면 1개와 작은 화면 4개로 구성돼 시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출시하는 일체형 PCTV는 LG유플러스의 광기가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휴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월 6000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내년부터 60세 정년·임금피크제

롯데그룹

모든 계열사에 도입 예정
고용창출 경제활성 기여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모든 계열사에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롯데 계열사별로 차이가 있던 정년(55세·57세·58세)은 모두 60세로 연장된다. 다만 연장되는 기간에 따라 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10%수준 줄어든다. 직무·직책에 따라 감소폭은 조정된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계열사 노동조합과 60세 정년·임금피크제를 두고 조율, 지난해 합의를 끝내고 2016년 시행을 준비해왔다.

롯데제과·롯데건설·롯데푸드 등의 계열사는 2014년부터, 롯데홈쇼핑·롯데상사·대홍기획 등은 올해부터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롯데그룹 측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재원 확보와 투자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신입사원을 포함해 약 2만4000명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롯데그룹이 직접 고용하는 직원은 9만5000명으로 협력사원 등 간접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국내에 3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황용석 롯데그룹 신문화팀 상무는 "롯데 전 계열사에서 60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 안전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용 창출을 해 청년 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홈플러스, 가을전어 한 마리에 1000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내달 2일까지 가을을 맞아 전국 140개 점포에서 생물 전어 한 마리를 시중 가격 대비 약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4만 마리의 물량을 확보해 한 마리당 1000원에 판매한다. 영등포점·월드컵점 등 130개 점포에서는 전어회(팩·200g)를 9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경협 피해보상제도 안전판 역할 못 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 중단시 보험금 없어
철수해야 보험금 받는 수준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가 남북 관계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측의 규정·제도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철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때 보험금 지급 대상은 파업·태업 등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증빙을 기업이 제출했을 경우로 제안했다.

정기섭 회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보험 제도 개정을 위한 '보장없는 남북경협보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남북경협사업은 그 당시 필요성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인데, 민간의 손실이나 사업적인 흥망에 대해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OECD국가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100%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남북경협보험을 자동차보험에 비유하면서 "차가 처한 상황이나 손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폐차를 해서 자진반납할때만 보험금을 준다"며 "폐차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기업이 입은 피해는 통일부 추산 7000억원 이상이며 기회비용(11억원)만 보상돼 보험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경협보험금 미반납 기업들과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들은 보험 가입마저 제한된 상태다.

신한용 협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월 개정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 기준은 2013년 가동 중단 사태 때보다 더 후퇴해 사업 재개시에만 반납이 필요없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정지가 장기화돼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사업이 재개되면 모든 보험금을 반납해야 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 관계자는 "3월달부터 임금 문제가 제기돼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되기까지 입주기업의 상황은 아주 안좋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포격 사건 도발 이후 남북이 협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의 압박이 심했다"며 "앞으로 거래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달 전에 진행됐던 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뤄 자금 회전이 안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업이 정지된 후 재개되는 일이 향후에 다시 발생할 경우 지분과 대부 등 투자와 관련해 직전연도 자산 평가액과 사고 후 자산 평가액을 비교, 감수분을 손실액으로 간주해 기업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길 기자 sweatsk@

'더 뉴욕팰리스 호텔' 인수 마무리

롯데호텔

2020년까지 50개점 목표
내달 이름변경 후 현판식



뉴욕 더 팰리스 호텔 전경. /연합뉴스

롯데호텔(대표 송용덕)은 28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더 뉴욕 팰리스 호텔'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고 27일 밝혔다. 인수대금은 모두 8억500만 달러다. 한화로는 9500억원수준이다.

맨해튼 매디슨애비뉴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은 55층 건물로 객실 909개, 연회장 23개를 갖추고 있다. 타워층은 6성급으로, 그 외 층은 5성급 호텔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롯데호텔은 2018년 아시아 '톱3' 호텔 브랜드라는 목표아래 2010년 롯데호텔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호찌민, 하노이, 타슈켄트, 괌에 잇따라 호텔을 개관했다. 2020년까지 50개 호텔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롯데호텔은 5월 29일 더 뉴욕 팰리스 호텔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6월 5일 운영 법인 설립을 거쳐 이달 28일 계획대로 인수를 마무리 짓고 롯데호텔 체인으로서 영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15~16일 께 '롯데 뉴욕 팰리스'로 이름을 바꾸고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미 정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숙소로 해당 호텔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UN국무부 본부 설치 장소로도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을 검토 중이다.

/박상길 기자

CJ 손경식, 中 궈슈칭 산동성장 일행과 환담

CJ그룹은 손경식(77·사진) 회장을 비롯한 양승석 CJ대한통운 대표, 박근태 CJ중국본사 대표, 이해선 CJ제일제당 대표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일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CJ E&M센터에서 방한중인 중국 궈슈칭 산동성장 일행을 환담했다고 27일 밝혔다.

궈슈칭 산동성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중국 산동성내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기관과 주요 기업 방문 일환으로 이뤄졌다. 궈슈칭 산동성장(장관급)을 비롯해 주한중국대사관조우창팅상무공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방문 일행단은 CJ E&M센터 1층 문화창조융합센터 투어를 시작으로 CJ그룹의 홍보영상 관람 및 CGV 4DX, ScreenX를 체험하고 손경식 회장과 티타임을 갖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CJ 손경식 회장은 "궈슈칭 산동성장 일행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CJ그룹을 방문해 준 것은 영광"이라며 "지난 1994년 산동성에 첫 진출 이래 현재 식품, 식품서비스, 생명공학, 물류, 영화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산동성에 진출한 CJ의 사업 외에도 문화사업 방면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염지은 기자 senajy7@

정수기 이어 비데시장 출사표

현대렌탈케어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렌탈케어(사장 김화응)가 비데 제품 '프리미엄형 리모컨 비데'(제품명: BD-C850R)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리미엄형 리모콘 비데는 살균 기능이 뛰어난 은나노 노즐에 오염에 강한 코팅기술이 적용됐다. 국내 특허를 받은 세디먼트 필터가 깨끗한 물을 분사해 위생기능을 특화했다.

또 관리가 쉽고 위생적인 분리형 스테인리스 노즐과 리모콘 타입의 조작부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렌탈·멤버십 고객은 4개월 주기로 한 번씩 현대렌탈케어 매니저(CM)의 노즐세척과 살균세정·필터교체 등 6단계 클린헨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시불 판매가는 78만원이며 렌탈 서비스에 가입하면 월 렌탈료 2만 2900원(등록비 10만원 기준)이다. 문의는 1800-8888.

/김수정 기자 ksj0215@

아이스크림시장 '넘버원' 브랜드


/배스킨라빈스 제공

비알코리아 '배스킨라빈스'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비수기에도 안정적 매출 확보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는 고급 재료와 선택의 즐거움·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넘버원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배스킨라빈스는 1985년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계열사인 비알코리아(대표 조상호) 설립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 매장 인테리어를 카페형으로 선보여 테이크아웃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왔다.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쿠키샌드·아이스크림롤·비스킷슈 등 디저트와 블라스트·버블쉐이크 등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배스킨라빈스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접목된 특화제품으로 케이크 시장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상품이다. 2011년 첫 선을 보인 조각 아이스크림 케이크 '와츄원'은 누적 판매 200만개를 기록하며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캐릭터를 이용해 출시한 '카카오프렌즈의 여름휴가' '어지피는 힐링중' '제이쥬는 선탠중' 등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수기에도 매장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배스킨라빈스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활동도 펼치고 있다. 점포 공백 시 가맹점주 대신 본사 담당자들이 매장을 운영해주는 '1,2,3 캠페인'을 비롯해 가맹점주 대학생 자녀·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SPC 행복한 장학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통해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생활동과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고급 디저트와 커피를 한 곳에서"


/투썸플레이스 제공

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200여종 다양한 디저트로 차별화 원하는 맛 원두 선택 서비스 인기

CJ푸드빌의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디저트 문화 확산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CJ푸드빌은 2002년 투썸플레이스 신촌 1호점을 오픈하며 '디저트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커피뿐만 아니라 고급 호텔이나 정통 디저트 숍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디저트류를 선보이고 있다.

마카롱과 수제 초콜릿부터 30여 가지의 프리미엄 케이크·샌드위치·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2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메뉴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투썸플레이스의 프리미엄 디저트를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용 프리미엄 디저트 8종을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프리미엄 롤케이크는 생크림을 속 안 가득 채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투썸플레이스의 모든 커피는 고품질 원두로 뽑아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최상의 상태로 살아 있어 깊고 풍부하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커피 음료 주문 시 두 가지 원두 중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원두는 진하고 깊은 풍미의 '오리지널'과 깔끔하고 산뜻한 '스페셜' 두 종류다. '오리지널'은 디저트 카페인 투썸의 브랜드 정체성에 맞는 디저트와 잘 어울리는 깊고 진한 정통 에스프레소다. 중남미 산지의 고품질 원두를 다크로스팅해 제공한다. '스페셜'은 산뜻한 과일 풍미의 개성있는 에스프레소로 원두 본연의 향, 산도, 입안의 촉감 등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산지의 프리미엄 원두를 블랜딩해 미디엄로스팅해 제공한다.

투썸플레이스(A TWOSOME PLACE)는 A(혼자), TWO(둘), SOME(동료) 등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PLACE)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따스한 한 잔의 커피가 있는(A Cup of Coffee), 우리가 함께하는(Two of Us),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디저트를 즐기는(Some Dessert)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공간(Place)'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와 '상생' 가치 선도



/코리아세븐 제공

코리아세븐

'도시락카페'·'창조경제 편의점' 등 점포수 확대 보다 매출 향상에 초점

1927년 미국 텍사스 주의 제빙회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세븐일레븐'은 국내 최초의 편의점이기도 하다.

1988년 한국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은 법인 설립 후 이듬해 5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점'을 열었다. 대한민국 첫 편의점이다.

1994년 롯데그룹이 코리아세븐을 인수하며 세븐일레븐의 확장세는 급격히 빨라졌다. 5년 후인 2001년 12월 업계 최초로 1000호점을 달성했다.

2010년 4월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롯데 코리아세븐은 올해 6월 기준 748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국내 편의점 빅3로 불리고 있다. 1호점 설립 후 26년 동안 7500여 개에 달하는 점포를 오픈했다.

상호명인 세븐일레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뜻이지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점포 수 기준으로 업계 3위다.

세븐일레븐의 경영 전략은 가맹점주와의 '상생'이다.

▲경영주 자녀 채용 우대 ▲경영주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대학생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우수 경영주 대상 해외점포 탐방 등의 상생프로그램이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현재는 점포 수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점포당 매출을 끌어 올려 경영주 수익을 향상시키는 내실 성장기조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도시락을 중심으로 한 복합 편의공간인 '도시락카페'를 선보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명동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에 스마트시스템을 융합한 도시락카페 2호 '창조경제 편의점'을 열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편의점이 들어서고 포화상태인 시점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질적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도시락카페와 창조경제 편의점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CU, 업계 최초 9000호점 돌파


/CU 제공

CU

소비성향 반영 '한국형 편의점' 가맹점주 이익 배분 최대 80%

편의점 업계 1위 CU(씨유·대표 박재구)가 27일 한양대학교 복지관에 9000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업계 최초이며 최대 규모다.

CU는 1990년 보광훼미리마트 1호점을 시작으로 26년간 편의점을 확장해 왔다.

2012년 8월에는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에 맞춰 '21세기 한국형 편의점' CU를 선보였다.

당초 훼미리마트의 이미지가 강했던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8월 현재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선제적으로 가맹점의 경쟁력 확보와 수익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질적 성장 전략'의 실행을 선언했다.

2014년 CU는 가맹 시스템의 개선 작업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을 최대 80%까지 높인 가맹형태를 선보였다. 심야 운영 여부도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개발 과정도 강화했다. 기존 개발팀에서만 이뤄졌던 개점 과정을 예비 가맹점주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검증을 통해 정밀한 매출을 가능케 했다. 또 가맹계약서에 최소 영업지역 보호 거리인 250m를 명기해 가맹점주 간의 상권 보호도 강화했다.

CU의 이러한 전략으로 2014년 신규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9% 상승했다.

박재구 대표는 "가맹점주와의 끈끈한 신뢰와 고객의 뜨거운 성원으로 업계 최초로 9000호점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가맹점주 수익 향상 등 내실 있는 성장과 더불어 CU만의 장점을 활용한 사회적 역할도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아이스크림시장 '넘버원' 브랜드

비알코리아 '배스킨라빈스'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비수기에도 안정적 매출 확보


/배스킨라빈스 제공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는 고급 재료와 선택의 즐거움·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넘버원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배스킨라빈스는 1985년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계열사인 비알코리아(대표 조상호) 설립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 매장 인테리어를 카페형으로 선보여 테이크아웃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왔다.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쿠키샌드·아이스크림롤·비스킷슈 등 디저트와 블라스트·버블쉐이크 등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배스킨라빈스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접목된 특화제품으로 케이크 시장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상품이다. 2011년 첫 선을 보인 조각 아이스크림 케이크 '와츄원'은 누적 판매 200만개를 기록하며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캐릭터를 이용해 출시한 '카카오프렌즈의 여름휴가' '어치피는 힐링중' '제이쥬는 선탠중' 등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수기에도 매장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배스킨라빈스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활동도 펼치고 있다. 점포 공백 시 가맹점주 대신 본사 담당자들이 매장을 운영해주는 '1,2,3 캠페인'을 비롯해 가맹점주 대학생 자녀·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SPC 행복한 장학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통해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생활동과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고급 디저트와 커피를 한 곳에서"

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200여종 다양한 디저트로 차별화 원하는 맛 원두 선택 서비스 인기


/투썸플레이스 제공

CJ푸드빌의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디저트 문화 확산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CJ푸드빌은 2002년 투썸플레이스 신촌 1호점을 오픈하며 '디저트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커피뿐만 아니라 고급 호텔이나 정통 디저트 숍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디저트류를 선보이고 있다.

마카롱과 수제 초콜릿부터 30여 가지의 프리미엄 케이크·샌드위치·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2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메뉴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투썸플레이스의 프리미엄 디저트를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용 프리미엄 디저트 8종을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프리미엄 롤케이크는 생크림을 속 안 가득 채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투썸플레이스의 모든 커피는 고품질 원두로 뽑아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최상의 상태로 살아 있어 깊고 풍부하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커피 음료 주문 시 두 가지 원두 중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원두는 진하고 깊은 풍미의 '오리지널'과 깔끔하고 산뜻한 '스페셜' 두 종류다. '오리지널'은 디저트 카페인 투썸의 브랜드 정체성에 맞는 디저트와 잘 어울리는 깊고 진한 정통 에스프레소다. 중남미 산지의 고품질 원두를 다크로스팅해 제공한다. '스페셜'은 산뜻한 과일 풍미의 개성있는 에스프레소로 원두 본연의 향, 산도, 입안의 촉감 등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산지의 프리미엄 원두를 블렌딩해 미디엄로스팅해 제공한다.

투썸플레이스(A TWOSOME PLACE)는 A(혼자), TWO(둘), SOME(동료) 등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PLACE)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따스한 한 잔의 커피가 있는(A Cup of Coffee), 우리가 함께하는(Two of Us),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디저트를 즐기는(Some Dessert)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공간(Place)'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와 '상생' 가치 선도

코리아세븐
'도시락카페'·'창조경제 편의점' 등 점포수 확대 보다 매출 향상에 초점



/코리아세븐 제공

1927년 미국 텍사스 주의 제빙회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세븐일레븐'은 국내 최초의 편의점이기도 하다.

1988년 한국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은 법인 설립 후 이듬해 5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점'을 열었다. 대한민국 첫 편의점이다.

1994년 롯데그룹이 코리아세븐을 인수하며 세븐일레븐의 확장세는 급격히 빨라졌다. 5년 후인 2001년 12월 업계 최초로 1000호점을 달성했다.

2010년 4월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롯데 코리아세븐은 올해 6월 기준 748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국내 편의점 빅3로 불리고 있다. 1호점 설립 후 26년 동안 7500여 개에 달하는 점포를 오픈했다.

상호명인 세븐일레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뜻이지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점포 수 기준으로 업계 3위다.

세븐일레븐의 경영 전략은 가맹점주와의 '상생'이다.

▲경영주 자녀 채용 우대 ▲경영주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대학생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우수 경영주 대상 해외점포 탐방 등의 상생프로그램이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현재는 점포 수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점포당 매출을 끌어 올려 경영주 수익을 향상시키는 내실 성장기조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도시락을 중심으로 한 복합 편의공간인 '도시락카페'를 선보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명동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에 스마트시스템을 융합한 도시락카페 2호 '창조경제 편의점'을 열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편의점이 들어서고 포화상태인 시점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질적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도시락카페와 창조경제 편의점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CU, 업계 최초 9000호점 돌파

CU
소비성향 반영 '한국형 편의점' 가맹점주 이익 배분 최대 80%



/CU 제공

편의점 업계 1위 CU(씨유·대표 박재구)가 27일 한양대학교 복지관에 9000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업계 최초이며 최대 규모다.

CU는 1990년 보광훼미리마트 1호점을 시작으로 26년간 편의점을 확장해 왔다.

2012년 8월에는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에 맞춰 '21세기 한국형 편의점' CU를 선보였다.

당초 훼미리마트의 이미지가 강했던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8월 현재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선제적으로 가맹점의 경쟁력 확보와 수익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질적 성장 전략'의 실행을 선언했다.

2014년 CU는 가맹 시스템의 개선 작업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을 최대 80%까지 높인 가맹형태를 선보였다. 심야 운영 여부도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개발 과정도 강화했다. 기존 개발팀에서만 이뤄졌던 개점 과정을 예비 가맹점주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검증을 통해 정밀한 매출을 가능케 했다. 또 가맹계약서에 최소 영업지역 보호 거리인 250m를 명기해 가맹점주 간의 상권 보호도 강화했다.

CU의 이러한 전략으로 2014년 신규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9% 상승했다.

박재구 대표는 "가맹점주와의 끈끈한 신뢰와 고객의 뜨거운 성원으로 업계 최초로 9000호점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가맹점주 수익 향상 등 내실 있는 성장과 더불어 CU만의 장점을 활용한 사회적 역할도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추억거리 한가득…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관광공사

항공사·여행사 공동
11월 30일까지 캠페인



한국관광공사는 '즐거운 한국여행, 행운 한가득' 캠페인을 통해 대만시장의 회복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메르스로 침체된 대만시장 회복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3개월 동안 13개 항공사, 26개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 특별 프로모션인 '즐거운 한국여행, 행운 한가득(開心遊韓 有GO幸運)' 캠페인에 돌입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8월30일~11월30일 에어텔 구매객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시 활용 가능한 할인쿠폰, 안내책자, 여행필수품 등을 한데 묶은 '즐거운 여행 파우치(開心旅遊包)'를 제공한다. 단체상품 구매고객에게는 추첨을통해 130명 대상으로 10만~100만원의 여행보조금을 제공한다. 상금은 총 4300만원(NT$1,300000)이다. 여행보조금 낙첨자들도 매달 경품추첨을 통해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 당첨이 가능토록해 캠페인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사용되는 상금 총 4300만원은 공동 주최 26개 여행사에서 경비를 전액 분담한다. 공동 주최 13개 항공사는 항공권 총 52매를 제공해 경품으로 활용한다. 또 행사의 효과적 홍보를 위해 SNS로 행사 홍보에 참가하는 고객에게는 총 300여개의 크고 작은 경품 추첨 기회를 준다. /최치선 기자

상명대 '청년고용+센터' 사업 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고용+센터' 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약 5년간 총 20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청년고용+센터' 사업은 해당 대학의 대학생은 물론 인근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정부지원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명대는 청년고용+본부를 본교에 설치하고 종로구 대학로에는 분소를 둬 지역과의 연계를 극대화해, 본부 내에 전문 컨설턴트를 추가·배치함으로써 상담과 취업지원 전문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외 강소기업으로의 진출망구축, 동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취업을 장려할 예정이다. /복현명기자 hmbok@

서울메트로, 대한민국명장 2년 연속 배출

서울메트로는 군자차량사업소에 근무하는 김영길(51)씨가 2015년 철도차량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영길씨는 1989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이후 26년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 한길을 걸어왔다. 이로써 서울메트로는 철도차량 직종에서 2명의 대한민국명장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김영길씨는 "전동차 정비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정비와 관리 노하우를 담은 서적을 집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수여한다. /최치선 기자

롯데푸드, 추석 선물세트 본격 판매



롯데푸드(대표 이영호)가 명절 선물세트를 본격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1만원대의 식용유 세트부터 10만원 이상의 고급 수제 햄 세트까지 총 60여 종에 이르는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명절 선물의 대표적인 캔햄 시장에는 '로스팜 엔네이처' 세트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은은한 마늘 풍미로 입맛을 돋우는 '로스팜 엔네이처 의성마늘'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돼 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격이 다른 상쾌함 '트레비'

롯데칠성음료

상반기 매출 전년비 200%↑
다양한 향·패키지 인기
유통채널별 차별화 마케팅



/롯데칠성음료 제공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약 200% 증가해 국내 탄산수 시장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27일 밝혔다.

트레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3월부터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 매달 30억~50억원씩 판매되며 올해 상반기만에 2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67억원에 비해 약 200% 성장했으며 지난 한 해 매출액 200억원을 상반기 만에 달성했다.

특히 라임향과 레몬향 트레비가 상반기 매출의 각각 40%씩 80%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무향 제품인 플레인은 12%, 지난 4월에 선보인 자몽향은 8%를 차지했다.

용기 기준으로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여러 번 나눠서 마실 수 있는 페트 제품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상반기에 선보인 트레비 라임 300ml 소용량 페트도 인기다.

롯데칠성음료는 4종류의 향(레몬·라임·자몽·플레인)과 5종류의 패키지(280ml 병·355ml 캔, 300ml·500ml·1.2L 페트)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피트니스센터, 클럽, 워터파크 등에서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음 이벤트, 유통 채널별 차별화된 마케팅 등이 주효해 큰 폭의 판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롯데 측은 분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트레비 붐업 조성을 위해 배우 고준희를 광고 모델로 재계약하고 8월 중순부터 트레비의 격이 다른 상쾌함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고(https://youtu.be/InSXxRMTJeI)에서는 칼로리, 트랜스지방, 당류는 모두 빼고 상쾌함만 남긴 트레비의 속성을 잘 표현한 '상쾌함의 높이가 다르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올해 800억~1000억원(국내 RTD 탄산수 기준)으로 예상되는 국내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를 트레비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신체 불균형 잡는 한방치료… 우울증 극복

닥터 Q&A



나영철 원장
(황금사과한의원 갱년기 클리닉)

-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병리학 전공)
-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현재)

Q. 갱년기 우울증, 한방(韓方)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A.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신체적 이상 증상과 정신적 이상 증상이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생리불순, 무월경, 열감 및 안면 홍조 등이 있으며 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 초조, 신경과민, 우울 등이 있다.

증상은 두 범주로 나뉘지만 정신적 이상 증상들도 신체적 이상 증상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되므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려면 단순히 각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집중한 치료보다는 근본적으로 갱년기의 원인을 찾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증상의 원인이 되는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인적 치료에 무게를 둔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증상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학적 접근에 의해 갱년기를 치료하면 자연히 갱년기 우울증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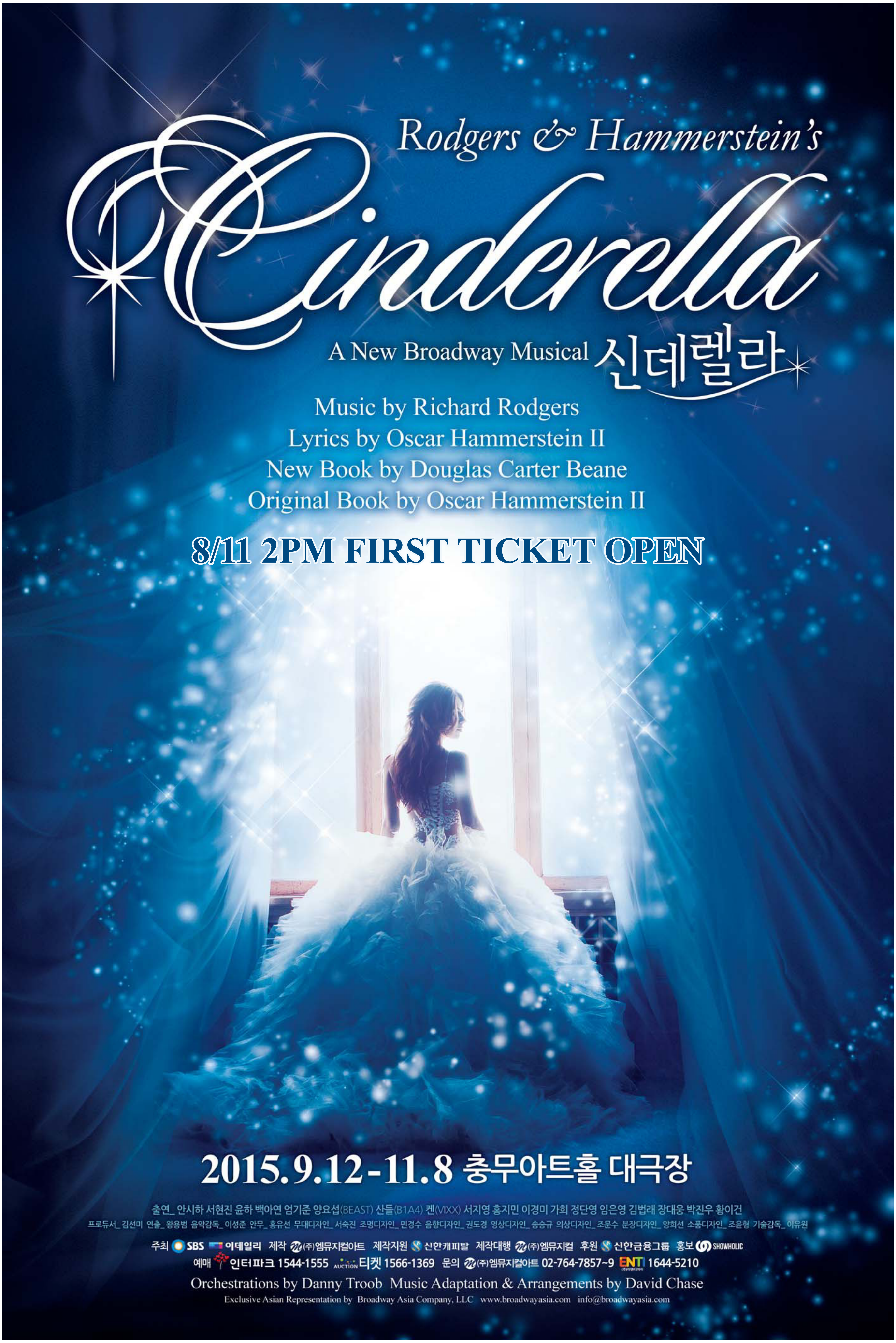
우울증은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따라서 갱년기에 대한 치료를 배제한 채 무조건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만 진행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치료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우울 증세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되는 갱년기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정신과 치료 이전에 갱년기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갱년기 우울증은 다른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신체 불균형에 기인한다. 성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1차적으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떨어진다. 눈에 띄게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여기에 더해 성호르몬이 부족하면 긍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우울감이 쉽게 들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갱년기 우울증의 한방치료는 한약을 통해 울혈을 제거하고 기혈을 보강해주며 몸의 따뜻한 기운과 찬 기운을 조절해 어그러진 신체 균형을 바로잡는 방법을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재는 육계(계피)와 황련이다. 두 약재는 몸의 기운을 조절하는데 탁월하며 예부터 심화(화병)를 다스리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돼왔다.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면 갱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들은 물론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이상 증상도 개선할 수 있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명랑·의젓·눈물… 팔색조 날개를 펴다

드라마 '파랑새의 집' 채수빈

지난 9일 종영한 KBS2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은 채수빈(21)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이다. 채수빈은 늘 가족을 생각하는 밝고 긍정적인 은수로 남다른 존재감을 남겼다. 극 초반에는 비타민처럼 건강한 상큼함을 안방 가득 전했다. 후반부에서는 남모를 출생의 비밀에도 꿋꿋하게 가족을 지키는 모습으로 시청자를 뭉클하게 만들었다.

주말드라마의 주연 자리는 신인 배우로서는 크나큰 기회였다. 부담도 많이 됐다. 처음 촬영장에 갔을 때는 선배 배우들과 주말드라마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촬영 현장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실수투성이라 혼날까봐 걱정도 됐죠. 그런데 현장에서 선생님, 선배님들이 정말 잘 해주셨어요. 금방 편하게 즐기면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은수였다. 채수빈은 "은수라는 아이랑 채수빈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비슷했다"고 말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은수가 철든 막내라면 저는 집에서 투정부리는 막내에요. 은수가 저보다 어른스럽죠. 그래서 은수에게도 많이 배웠어요(웃음)."

> 첫 주말극 주연 부담 컸지만
> 선배 도움으로 편하게 촬영
> 다양한 색깔 가진 배우가 꿈

드라마가 10회를 넘어갈 무렵에는 은수라는 캐릭터가 잘 맞는 옷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해졌다. 극이 전개될수록 현도(이상엽)와 이별을 겪는 등 감정을 쏟아야 하는 신이 많았다. "드라마라 같은 장면도 여러 번 찍어야 해서 감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어요. 현도가 엄마에게 은수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쉴 때도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느라 눈이 퉁퉁 부었죠." 드라마를 매회 모니터하면서 부족함과 민망함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채수빈에게는 연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6개월의 긴 여정을 마친 지금 채수빈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음 작품을 하는 것"이다.

어릴 적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비롯한 드라마를 보며 배우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 키워온 채수빈은 고등학교 시절 지금 소속사 대표에게 '길거리 캐스팅'으로 배우의 길을 제안 받았다. 그러나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부모님 뜻에 따라 친구들과 똑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스무살이 되던 해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 받으면서 큰 아픔 없이 자랐다"는 말처럼 아직까지 미디어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채수빈의 이미지는 구김살 없이 밝고 싱그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과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이기에 언젠가는 은수와는 상반된 캐릭터도 연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수빈은 어떤 역할이든 해낼 자신이 있다. "연극에서는 드라마와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었어요.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은수처럼 저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도 하고 싶고, 그와 정반대로 큰 아픔을 겪는 역할도 해보고 싶거든요."

드라마를 마친 뒤 영화 '로봇, 소리'의 막바지 촬영 중인 채수빈은 빨리 다음 작품을 정해 다시 대중 앞에 설 계획이다. 처음으로 연기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해준 연극도 여유가 된다면 계속 하고 싶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배우가 되는 것, 배우를 향한 채수빈의 마음은 그렇게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tar bag

첫 앨범 차트 강타



래퍼 **이센스**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짧은 회고록을 콘셉트로 한 첫 번째 앨범 '에넥도트(The Anecdote)'를 27일 자정 발표했다. 앨범은 공개와 동시에 멜론, 엠넷 등 온라인 음악 차트 상위권에 랭크됐다.

JYJ 멤버 두 번째 입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7일 입대했다. 박유천은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간 복무한다. JYJ 멤버 중 김재중에 이어 두 번째 입대다.



'빙그르르'로 활동

걸그룹 **소나무**가 후속곡 '빙그르르'로 활동을 이어간다. 펑키, 디스코, EDM 장르가 총망라돼 화려한 현악기 사운드에 그루브한 기타와 베이스가 어우러진 신나는 곡이다. 밝은 에너지가 돋보인다.

이민호 상대역 낙점



중국 배우 **탕엔**이 한중합작영화 '바운티헌터스'에서 이민호의 상대역으로 낙점됐다. 팜므파탈 캐릭터로 이민호와 호흡을 맞춘다. 350억 규모의 글로벌 아시아 프로젝트로 내달 2일 크랭크인한다.



촬영 끝 하반기 개봉

배우 **강예원**, **이상윤**이 영화 '날 보러와요'의 촬영을 마쳤다. 화재사고를 추적하는 방송국 PD와 화재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다. 하반기 개봉한다.

공연 티켓 한 장 사면 두 장 드려요

공연 예술계 활성화 '공연티켓 1+1' 서비스



공연 티켓을 한 장 사면 무료로 한 장 더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공연 예술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연티켓 원플러스 원' 지원 사업을 27일 주관예매처인 인터파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연티켓 원 플러스 원 지원 사업은 관객이 5만원 이하의 공연 티켓을 지정 예매처에서 1장 구매하면 관객에게 플러스 티켓 1장을 더 주는 사업이다. 국고 보조금으로 플러스 티켓 판매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 1차 공식 티켓 오픈 대상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리는 291개 공연 작품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연극 140개, 뮤지컬 50개, 음악공연 64개 등이 포함됐다. 일반 관객들은 주관 예매처인 인터파크를 통해 개인당 2매(플러스 티켓 포함 총 4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지원 사업 해당 작품은 공연티켓 원 플러스 원 공식 누리집(plustick et.or.kr)과 인터파크 '원 플러스 원 존'(www.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중 추가 작품 공모를 실시해 다음달 25일에 2차 공식 티켓 오픈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현장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예매 공간을 서울·대전·대구·수원·성남·안산·전주 등 주요 도시와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공연관람 수요가 밀집한 거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팀 전력 강화 위해 연봉 59억원 반납

스포츠 주간 해프닝

미국프로농구(NBA) '모범생' 팀 덩컨이 소속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전력 보강을 위해 올 시즌 연봉 500만 달러(약 59억원)를 반납했다.

샌안토니오는 2015-2016 시즌을 앞두고 샌안토니오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서 특급 포워드 라마커스 알드리지를 영입하고 기존 멤버 카와이 레너드, 대니 그린과 재계약에 성공했다.

샌안토니오가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덩컨 덕택이었다.

20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2년간 1000만 달러(약 118억원)를 받기로 한 덩컨은 새 시즌을 앞두고 500만 달러를 자진 반납했다. 이 돈으로 알드리지와 레너드, 그린과 계약했다.

NBA는 이 같은 덩컨의 헌신에 대해 '트와이먼-스톡스 올해의 동료상'으로 보답했다.

금메달로 택시비 낸 챔피언

폴란드 해머던지기 선수 파월 파이데크(26)가 금메달로 택시비를 결제했다 되찾았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27일 "파이데크가 금메달로 택시비를 지급하는 기행으로 중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전했다.

파이데크는 2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육상선수권대회 해머던지기 결승에서 80m88을 던져 우승을 차지했다. 감격에 젖은 나머지 축하 파티를 했다. 더 출전할 종목이 없는 터라 걱정 없이 술을 마셨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충격에 빠졌다. 금메달을 분실했기 때문이다.

파이데크는 택시기사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금메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서도 절도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술에 취한 파이데크가 택시비로 금메달을 줬다"는 것이었다. 파이데크도 "그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인정했다. 택시기사가 금메달을 파이데크에게 돌려주기로 하면서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왼쪽부터 팀 덩컨과 파월 파이데크. 오른쪽은 지난 22일(한국시간) 덴마크 히메르란드 골프장 16번 홀에서 안드레아스 하르퇴가 여자친구 루이스 드 프리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유러피언투어 홈페이지

경기 중 여자친구에 프러포즈

덴마크 골프 선수 안드레아스 하르퇴(27)가 유럽프로골프 투어 경기 중 버디를 잡고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했다.

하르퇴는 22일 덴마크 히메르란드 골프장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투어 메이드 인 덴마크 대회 2라운드 경기 중 16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고 갤러리 사이에 있던 여자친구 루이스 드 프리스를 그린 안으로 불렀다. 여자친구 손을 이끌고 자리를 잡은 하르퇴는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결혼을 요청했다. 여자친구의 대답은 "예스"였고 3000여명의 관중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이들을 축하해줬다.

유럽 투어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하르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7이다. 1과 6을 더하면 7이 된다"며 16번홀에서 프러포즈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90년대 초반 우리는 어땠을까

◆ KBS2 '드라마 스페셜-그 형제의 여름' 금요일 오후 10시50분



다문화가정에 사는 동길은 국진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출을 결심한다. 동길은 가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해운대 바다축제 댄스경연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한다. 1992년 여름 신드롬을 일으킨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로 곡을 정하고 동네 친구들과 팀을 결성한다. 서태지와 아이들에 푹 빠진 11살 어린이를 통해 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그려낸다.

◆ SBS '오마이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리키김은 태오가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선다. 셋째 출산을 앞둔 그는 '한 집안에 둘이나 기저귀를 채울 수 없다'며 태오의 배변훈련에 돌입한다.



◆ JTBC '마녀사냥' 금요일 오후 11시



허지웅은 그동안 자신을 향해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서인영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두 장난이었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듣고 서운한 기색을 드러낸다.

◆ MBC '세바퀴' 금요일 오후 10시

서예지는 장도연이 꽃게춤을 추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꽃게춤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장도연은 한동안 추지 않았던 꽃게춤을 선보이며 민망함에 춤을 시킨 서예지를 나무란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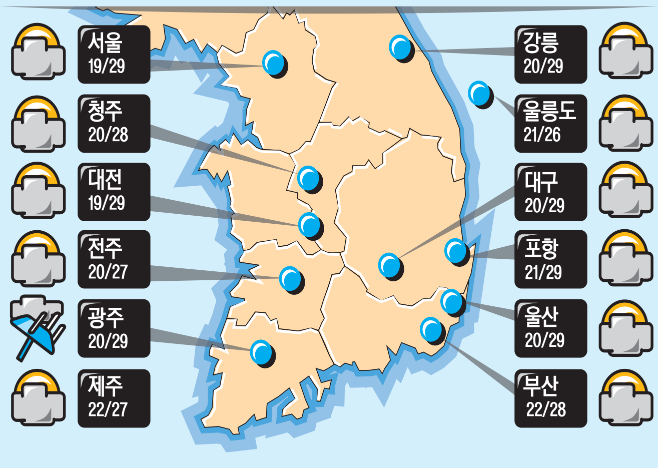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29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어리 이야기 2 15:15 한국인의 밥상 (재) 16:10 역사저널 그날 (재) 17:10 청년취업 프로젝트 내 일을 부탁해 18:00 동행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2:35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3:45 콘서트 7080 24:50 T 타임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2:30 별난 며느리 (재) 13:30 개그 콘서트 (재) 15:05 슈퍼맨이 돌아왔다 16: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30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24:5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3:40 밤을 걷는 선비 (재) 15:50 쇼! 음악중심 17:00 우리 결혼했어요 18:2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여자를 울려 22:00 여왕의 꽃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10:50 접속! 무비월드 12:10 미세스캅 (재) 14:30 런닝맨 (재) 15:50 애인 있어요 (재) 17:00 오!마이 베이비 18:25 질주본능 더 레이서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4:15 심야식당	10:1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1:40 비정상회담 (재) 13:2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14:4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6:0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7:30 비정상회담 (재) 18: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19:40 JTBC 뉴스룸 20:30 라스트 21: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4:30 라스트(재)	10: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나는 자연인이다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24:50 천기누설 스페셜 (재)	11:30 두번째 스무살 (재) 12: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4:40 수요미식회 (재) 16:10 젠틀맨리그 (재) 17: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9:10 두번째 스무살 (재) 20:30 두번째 스무살 21:40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23: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00 올리브쇼 2015 14:10 비법 15:40 오늘 뭐 먹지? 16:50 2015 테이스티로드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오늘 뭐 먹지? 23:00 2015 테이스티로드 24:00 비법
30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10 KBS 슈퍼클래식 16:10 다큐 공감 (재) 17:10 KBS 뉴스 옴부즈맨 17:40 동물의 왕국 18:0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19:10 도전 골든벨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21:00 KBS 뉴스 9 21:40 KBS 미래포럼 22:40 역사저널 그날 23:30 취재파일 K 24: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0:35 출발 드림팀 시즌2 11:45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24:55 영화가 좋다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3:15 화정 (재)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여자를 울려 22:00 여왕의 꽃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09:30 TV 동물농장 10:50 정글의 법칙 (재) 12:10 애인 있어요 (재) 13:15 용팔이 (재) 15:40 SBS 인기가요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2015 서울재즈페스티벌 2부	10: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2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4:40 비정상회담 (재) 16: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7:25 유자식상팔자 스페셜 18:3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닥터의 승부 21:45 김제동의 톡투유 23: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4:00 라스트 (재)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5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10:10 Let 미인 5 (재) 11: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3:00 두번째 스무살 (재) 15:40 집밥 백선생 (재) 17: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30 문제적 남자 24:00 처용 2 (재)	10:10 올리브쇼 2015 11:30 비법 13:00 오늘 뭐 먹지?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15:00 비법 16:30 올리브쇼 2015 17:50 정재형의 프랑스 가정식 18:30 오늘 뭐 먹지? 19:30 비법 21: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22:20 올리브쇼 2015 23:30 오늘 뭐 먹지? 24:00 언제나 칸타레2

날씨

8/28 금 일출시각 05:58 일몰시각 19:0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생활 영어

It's now or never

A: I'm taking the afternoon off.

B: What's wrong?

A: I have a *grad school* interview.

B: What? You haven't told me anything about this.

A: I've been chewing this issue over since I don't know when. And I have a feeling this is a dead-job for me.

B: I see. But you said you liked working there…

A: I do. But time wait for no one.

B: But still…

A: It's now or never.

B: Well, good luck then.

지금이 아니면 안 돼

A: 오늘 오후에 조퇴할거야.

B: 무슨 일인데?

A: 대학원 인터뷰가 있어.

B: 뭐?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A: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어. 그리고 나한텐 여기가 가망없는 직장이라는 예감이 들어.

B: 그렇구나. 그래도 너 거기서 일하는 거 좋아했잖아…

A: 그렇지.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B: 그래도…

A: 지금이 아니면 안 돼.

B: 그럼 행운을 빌께.

* grad school – 대학원(graduate school)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7					
	3		9	5	8			
5	9		3					1
	8						6	
6	1	9				5	8	3
	4						7	
1					9		3	8
			8	4	7		1	
					5	4		

		5			8		1	7
		9	3					
			7				3	
9	5		2			6		
1	3						7	8
		2			7		5	9
	1				9			
					3	5		
2	7		4			3		

스도쿠 정답

8	2	6	7	1	4	3	5	9
4	3	1	9	5	8	6	2	7
5	9	7	3	2	6	8	4	1
7	8	2	5	9	3	1	6	4
6	1	9	4	7	2	5	8	3
3	4	5	6	8	1	9	7	2
1	5	4	2	6	9	7	3	8
9	6	3	8	4	7	2	1	5
2	7	8	1	3	5	4	9	6

3	2	5	9	6	8	4	1	7
7	4	9	3	1	5	8	2	6
8	6	1	7	4	2	9	3	5
9	5	7	2	8	1	6	4	3
1	3	6	5	9	4	2	7	8
4	8	2	6	3	7	1	5	9
5	1	3	8	2	9	7	6	4
6	9	4	1	7	3	5	8	2
2	7	8	4	5	6	3	9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미용실 동업과 재혼운이 궁금합니다
동업은 양보·재혼은 2017년 이후 준비

무지개 행복 여자 78년 11월 19일 양력 16시경

Q 4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현재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오래 근무 하다가 이번에 언니와 함께 동업으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서있는 직업이라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아예 제가 가게를 차리려고 합니다. 동업을 해도 문제는 없겠는지요. 그리고 제가 상처한 남자 분을 소개 받아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실패한 결혼이라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노후까지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재혼을 하려니까 겁이 납니다. 저의 사주팔자가 이 모든 것을 감당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숨 한번 돌리기 힘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내다 보니 항상 아쉬운 것은 휴식 같은 성찰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여 진 업장을 씻어내고 직장 일에 큰 문제가 없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힘이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몸을 죄어오던 긴장을 풀어 놓고 속에 있는 마음을 기도에 모두 담아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화가 되며 업무 중에 수시로 솟아오르는 짜증이나 분노 그리고 갖은 스트레스를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하니 우주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몸속으로 들어와 기를 돋워 주게 되니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음지(陰地)의 꽃이 되며 점점 추워지는 혹독한 북풍한설(北風寒雪)을 이겨 내는 끈기와 인내력이 필요한 등라격갑(藤蘿擊甲:덩쿨풀이 큰나무 둥치를 휘어 감고 올라감)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기질이 부족한 성품입니다.

깔끔하고 유순한데 소심하고 결단 실행력이 부족하여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자신이 오너 역할을 하기 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참모 역할을 하는 사주입니다.

일지(日支)에 신금(辛金)은 날카로운 가위가 되어 미용원업종이 천직이 될 수 있겠으나 늘 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리적으로 자매 운기는 사지(死地)에 앉아 있어 부모 곁에 있을 때는 화합하며 지내다 출가 후는 모두 어려움이 많겠으니 언니와 동업을 하는 것은 사이가 나빠지는데 기도를 하면서 양보를 한다면 일석이조로 오히려 얻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2017년 지나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8일 (음 7월 1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60년생** 여자를 조심하세요. **84년생** 친구에게 심한 언행을 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96년생**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소 **49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61년생** 하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요. **73년생**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85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호랑이 **50년생** 교육 상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62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74년생** 귀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86년생**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63년생** 보안을 해 나가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75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87년생** 손실만이 따를 뿐입니다.

용 **52년생**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에 조심하세요. **64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76년생** 늘 조심성 있게 나아가세요. **88년생** 음과 양이 화합하고 상하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뱀 **53년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65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77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89년생** 즐거운 인생을 꿈꾸면 좋습니다.

말 **54년생** 리더십이 뛰어나 지도자격입니다. **66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아 가세요. **78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90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양 **55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67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9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91년생** 공로를 세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68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80년생** 성실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92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닭 **57년생** 기분 좋은 날입니다. **69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1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93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개 **58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70년생** 이익이 상당합니다. **82년생** 눈 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세요. **94년생**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됩니다.

돼지 **59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7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3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입니다. **95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일제 때 사라진 우리문화 복원 적극 나서야



㈜커뮤스퀘어
김철호 대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70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을 이룩했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성취했다. 지난 70년이란 길지 않은 기간에 '위대한 여정'을 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때 없어지거나 왜곡된 우리 문화를 복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 한 것이 많다. 무궁화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고, 꽃 이름이 그러하다.

나라 꽃인 무궁화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지저분하고 병을 옮긴다는 잘못된 오명을 썼다. 전국적으로 오래된 무궁화를 모두 뽑아 버리고 새로 심는 무궁화는 지저분한 곳에 심어 고의적으로 무궁화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무궁화가 안질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소문도 퍼트리기도 했다.

풀 꽃 이름도 왜곡된 잔재가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식물에 일본식 이름을 붙였고 일본 관리 이름으로 작명하거나 혐오적 이름을 썼다. 이들 풀 꽃들은 지금도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왜곡된 이름을 고유 이름처럼 오인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전통주와 음주문화도 대부분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각 가정에서 술을 빚어 먹는 가양주(家釀酒)문화가 있었으며 그 종류는 약 600여 가지 이상이 문헌으로 전해진다. 집에서 술을 빚는 가양주 문화는 단순한 음주를 위한 술 빚기가 아니라 빚은 술로 이웃, 가족과 나누면서 어울리는 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했다. 지역마다, 가문마다, 계절마다 독특한 술을 빚어 서로 나누며 결속을 다졌다.

이런 우리나라 전통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사라졌다. 전통 가양주는 조선총독부의 주세령 발표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붙게 되고 가정에서 담그던 가양주에까지 면허제를 적용하면서 공장이 아니면 술을 만들 수 없도록 하며 사라졌다.

전통 가양주가 사라진 자리를 일본식 청주가 채우며 마치 우리 전통주처럼 오인되며 주인행세를 했다. 맑은 술을 말하는 청주는 그 이름을 일본식 청주에게 빼앗기고 전통 청주는 약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우리나라 전통 청주를 밀어내고 차례상을 차지한 일본식 청주인 '정종'은 차례주를 부르는 보통명사처럼 굳어졌다. 정종(正宗)은 일본어로는 '마사무네'라고 읽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부산에 일본식 청주공장을 세우고 여기서 일본식으로 만든 청주의 제품명이다. 청주를 '정종'(正宗)이라고 부르는 것도 일제시대의 잔재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조들이 싸워서 지키고자 했던 우리 조국과 우리 문화를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사라지고 왜곡된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다시 기억하고 복원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고 왜곡된 우리 문화를 되살려야 진정한 문화 광복이 될 것이다.

社說

비무장지대 지뢰부터 제거하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중이던 지난 23일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육군 하사관 1명이 부상했다. 우리 언론은 현명하게도 남북한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보도를 자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빠졌던 직접원인도 다름 아닌 바로 지뢰였다. 지난 4일 남측 구역에서 북한 목함지뢰가 터져 우리 국군 하사관이 부상당한 사건이었다. 그러자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보복에 나섰고, 남북한이 포격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됐던 것이다. 남북한 고위접촉 결과 이같은 긴장이 일단 해소되었으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뻔했으니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뢰는 폭발과 동시에 사람의 발과 다리에 치명상을 입히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야만적인 무기이다. 남북한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비무장지대에는 지뢰가 100만여 발 이상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한 군대가 6·25 전쟁 이후 날카롭게 맞서면서 묻어두거나 뿌린 것이다. 이처럼 많은 지뢰가 묻혀 있다 보니 민간인도 가끔 지뢰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곤 했다.

이제 남북한은 지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군인과 민간인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 전쟁위기까지 야기하니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도 있다. 지난 2000년 남북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면서 남측 공사 과정에서 3만6000여 발의 지뢰를 걷어낸 바 있다. 박근혜정부도 비무장지대에 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자고 북한에 제의해 둔 상태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지뢰가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남북한 사이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 또는 해소되어야 한다. 때마침 남북한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상를 하기로 했으니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암살'과 '베테랑' 흥행이 우리에게 남긴 것



기자 수첩
장 병 호
<생활문화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천만 영화가 탄생했다. 최동훈 감독의 '암살'은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15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도 26일까지 누적 관객수 959만여 명을 기록해 조만간 1000만 돌파가 확실시 된다.

같은 시즌에 두 편의 천만 영화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들 영화가 대중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실에서 대중이 느끼던 답답함을 영화가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줬기 때문이다.

'암살'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한국 근대사의 단면을 영화적으로 재현했다. 극중 임시정부대원인 동시에 일본의 밀정으로 활약하는 염석진(이정재)을 통해 영화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권력층의 정체를 낱낱이 그려보였다.

물론 영화는 지난해 개봉한 '명량'처럼 민족정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역사의 무게감과 장르영화의 가벼움 사이를 교묘하게 오간다. 스타일리시한 액션 신, 그리고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하와이 피스톨 같은 캐릭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마지막 엔딩을 통해 아주 잠시나마 민족정서를 건드렸다. 그러나 이 결말은 관객으로 하여금 친일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영화의 주제가 광복 70주년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흥행으로 이어졌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베테랑'은 많은 이들이 언급하듯 류승완 감독의 이전 작품인 '부당거래'를 연상시킨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철저하고 자세한 취재를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러면서도 이 지독한 부조리함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소시민적인 영웅 캐릭터를 만들어내 관객에게 쾌감을 선사했다. 예상대로 '베테랑'은 개봉 4주차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쉼 없는 관객 동원을 이어가고 있다. 극중 재벌 3세 조태오가 시민들에 둘러싸인 채 궁지에 몰리는 모습은 영화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통쾌함을 전하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들 영화에 대한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두 영화의 결말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하고 찝찝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영화가 지적한 세상의 부조리함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류승완 감독의 말이 떠오른다.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사람을 바꿀 수는 있다."

"제습기 등 계절 제품 상담 급증"

소비자 119

7월 소비자상담 분석

지난달 제습기, 에어컨, 자동차대여 등 여름철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단일 상담망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7월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제습기 관련 상담은 총 102건으로 지난달보다 142.9% 늘었다. 성능불량·악취·발열·소음, 수리용 부품 미보유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에어컨 관련 상담접수가 1044건이 접수돼 전달보다 112.6% 늘었다. 냉방불량·가스누출·소음, 설치비 과다청구·설치 미흡, 수리용 부품 미보유 관련 상담 내용이 많았다.

자동차대여(렌트) 관련 상담은 7월 한 달간 562건이 접수됐으며 상담건수는 지난달보다 62.4% 증가했다. 대여차량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금, 휴차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내용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상담도 많았다. 차량 대여 관련 상담은 매년 휴가철인 7~8월에 급증하는 추세다.

냉장고는 총 746건의 상담 문의가 들어와 전달 대비 40.8% 증가했다. 성에·소음·전면 강화유리 파손, 수리용 부품 미보유와 수리불가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선풍기는 109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달보다 4.8% 증가했다. 성능불량·타는 냄새·소음 등 반복적 하자발생 불만이 많았다.

상담이 많은 품목은 '휴대폰·스마트폰'(2776건), '이동전화서비스'(2083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654건), '초고속인터넷'(121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제습기 등 여름철 가전제품 관련 상담은 5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품질과 사후 수리서비스 불만족 관련 상담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minus@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대진 ▲서비스표심사과장 서동욱
◇SH공사 △1급 전보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 전오식 ▲보상실장 고장열 ▲가든파이브사업처장 이건희 △2급 전보 ▲총무팀장 주홍석 ▲재정전략팀장 김영준 ▲계약팀장 정세윤 ▲분양팀장 김선직 ▲공급관리팀장 이현희 ▲특정감사팀장 김주민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박성열 ▲119특수구조단장 정규동
◇청주시청 △4급 승진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4급 전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수성대학교 ▲산학협력처장 겸 보육교사교육원장 최병태 ▲교학지원처장 겸 학생상담센터장 겸 장애인지원센터장 김이영 ▲입학홍보처장 정재극 ▲행정지원처장 김선국 ▲도서관장 김대곤 ▲총장실 부속실장 김기만 ▲산학협력단장 홍성준 ▲평생교육원장 겸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동수 ▲취·창업지원센터장 이대현 ▲NCS-교수학습지원센터장 장현철 ▲창업보육센터장 정재용 ▲국제어학원장 박영순 ▲컴퓨터정보과 학과장 신종호 ▲보건복지경영과 학과장 정두진 ▲군사학과 학과장 겸 기숙사 사감 이진혁 ▲평가지원팀장 김건우 ▲학생지원팀장 이해문 ▲부설기관팀장 박기훈 ▲입학지원팀장 하이순

기사제보=02)721-9832